

건강한 마음 / 행복한 마음

1994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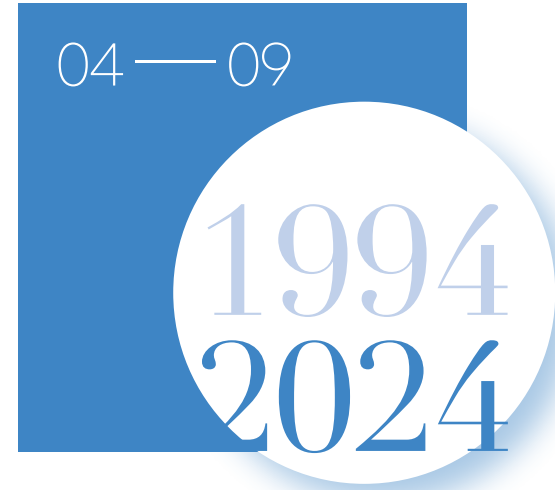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Hi 한마음

Magazine 2024 vol. 2



SPECIAL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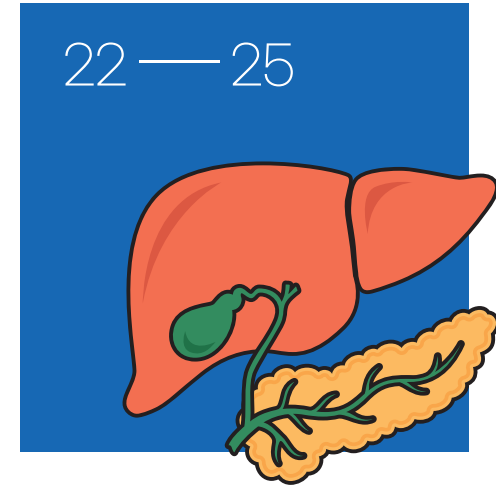
- 04 — 09 **한마음 역사관**
지역의료 30년, 한마음이 걸어온 길
- 10 — 13 **키워드 한마음**
1994? 2024!
- 14 — 15 **4 the top!**
카테고리로 읽는 한마음
- 16 — 19 **리더의 한마디**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 기념 인사말 및 취임사
- 20 — 21 **고객의 편지**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원 30주년 고객 축하 메시지



표지 이야기

창원한마음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94년 4병상의 작은 병원으로 시작해 2021년 1,008병상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산부인과·소아과의 명성을 이어 뇌·심장·중증외상·암을 중심으로, 이제는 간이식술과 췌장·담도 영역에서도 고난도 술기가 가능한 명실상부 경남지역의 대표병원으로 자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민의 따뜻한 사랑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베품의 정신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한마음은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병원, 믿을 수 있는 의술로 지역민의 자부심이 되는 병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건강! 한마음



- 22 — 25 **의료 Focus**
- 경남의 간이식술 새지평 열었다
- 췌장·담도 내시경 시술(ERCP) 1,400례 달성
- 개원 30주년 창원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으로 의료원 체제 구축
- 26 — 29 **열정 24시**
24시간 빛나는 사람들
창원한마음병원 응급의료센터
- 30 — 31 **의료 상식 O, X**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질환, 당뇨
- 32 — 37 **우리는 하나**
창원한마음병원의 숨은 영웅,
11인을 소개합니다

도전! 한마음



- 38 — 39 **한마음-이음**
한마음의료원 체제 출범
- 40 — 41 **상남-이음**
Again 상남한마음병원!
- 42 — 43 **현장-이음**
간호 현장과 행정을 잇는 김경다리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
- 44 — 47 **with U**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원 30주년 협력업체 축하 메시지

행복! 한마음



- 48 — 51 **나愛 동료들 소개합니다**
- 방사선종양학과 한영동 & 박수진
- 61병동 박은주 & 전보람 & 김수지
- 52 — 53 **소통과 협력**
우리병원 진료 협력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진료협력센터
- 54 — 55 **의료·의료진**
창원한마음병원·상남한마음병원 의료진 현황
- 56 — 57 **고객 참여**
한마음 퍼즐을 맞춰라!

통권 2024년 통권 제2호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인 하충식

발행처 창원한마음병원 hanheart.co.kr

기획 김민정

디자인 김은희

제작 디자인글꼴 www.ggad.co.kr

창원한마음병원에서 발행하는 병원보 <Hi 한마음>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 및 일러스트,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무단복사, 복제를 금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병원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94
2024
30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지역의료 30년, 한마음이 걸어온 길

창원한마음병원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다

1994

창원한마음병원은 설립자 하충식 의장이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대학병원 건립'이라는 목표 아래
1994년 개원하여 꾸준히 성장해 온 역사가 담긴 병원이다.
상남동 개원을 거쳐 2021년 3월 1,008병상 규모로 성장한,
지역 의료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온 명실상부 경남지역 대표 의료기관이다.
올해로 지역의료 30년, 한마음이 걸어온 역사적 순간을 되짚어본다.

글·구성 김민정 홍보파트장

2024

창원고려병원 인수, 시작을 알리다

하충식 의장은 현 병원명인 '한마음병원'을 개원 전부터 기획할 정도로 목표와 추진력이 남달랐다. 학위를 마치고 창원시 봉곡동 창원고려병원 내 산부인과 전문의로 재직하던 중, 병원을 한번 인수해 보겠느냐는 병원장의 제안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흔쾌히 수락한 것이 현 창원한마음병원 설립의 시초가 되었다. 1995년 1월, 창원고려병원을 인수해 이듬해 창원한마음병원으로 변경 개원했고 79병상으로 점차 그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문을 연 첫해부터 괄목할 만한 점은 창원한마음병원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병원이라는 점이다. 개원 해부터 아이들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부모의 고통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홍보와 지원사업을 유도하여 진정한 지역 사회 봉사 리더를 양성해 왔으며 '한마음나눔회(1996년 8월~현재)', '나라사랑회(1997년 9월~현재)' 결성으로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실천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시간 자원봉사 인증을 받는 등 남다른 행보를 이어왔다. 이밖에도 '한마음주부대학(2011년 7월~현재)'을 직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결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힘썼다.



1994~

1994. 03.
창원고려병원(의창구 봉곡동)
내 산부인과 의원 개설



1995. 01.
창원고려병원 인수,
한마음병원으로 변경 개원
(25실 79병상)



상남동으로 이전, 성장의 기틀을 다지다

2001년, 상남동으로 이전하면서 창원한마음병원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1년 12월 10일 신축병원이 완공됨에 따라 이전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했다. 2007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우수의료기관에 선정, 2008년 2월 25일 병원 신관증축공사를 시작, 2009년 6월 19일 증축동 완공을 통해 부족한 병상과 장비도입공간을 확충해 358병상 규모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0년 3월 22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개설했다. 2010년 12월 3일 한양대학교 의료원과 부속병원급 협력병원 협약을 맺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련에 관해 한양대학교 의료원 산하병원과 동일한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10일, 한양대학교와 의학분야 200억 규모의 임상, 연구, 교육수련의 협약을 체결, 한양대학교 전임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100여 명을 임용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확충은 물론 2011년, 하충식 의장은 제1회 국민추천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국민추천 국민포장은 봉사와 선행을 실천해 온 숨은 공로자에 대해 국민의 직접 추천을 받아 훈·포장을 수여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국민들은 “개원 이래 환자 중심의 병원 문화 조성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하충식 의장을 국가와 사회 발전에 앞장선 숨은 유공자로 추천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2019년에는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국민추천 국민유공훈장(동백장)을 받았다. 2011년과 2019년, 두 번의 국민포장을 수훈하면서 국민추천으로 두 번의 상을 받은 유일한 경영자이자 의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어 최경화 이사장 역시 2021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국민포장을 수훈해 부부 모두 국민포장을 수훈하는 기록을 세웠다.

2000

2001. 12.
상남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지하 2층 지상 9층, 257병상 규모)



2003. 10.
한국복지재단 55주년
한국복지재단을 빛낸 55인,
하충식 의장 선정

2004. 03.
개원 10주년



2008. 01.
창원한마음병원-필봉장학재단,
장학·사회사업 실시

2010

2010. 03.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경상남도 지정)

2011. 07.
하충식 의장 제1회 국민추천 국민포장 수훈



2012. 01.
2011년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선정

2014. 03.
개원 20주년 기념식



2017. 05.
2017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 대상 수상

2018. 01.
개원 이래 첫 정형외과 줄기세포 관절수술 성공

2018. 02.
TV조선 2018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리더십부문 대상 수상

2018. 03.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부문
2018 대한민국공감경영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의료서비스부문
2018 대한민국공감경영대상 수상

2018. 11.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시립마산요양병원 위탁 운영

2020

2020. 04.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2020. 04.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 발족,
창원한마음병원으로 명명



사람들 이전, 세계적 아시아 의료허브로 나아가다

2021년 3월 2일, 20년 동안 자리 잡았던 성산구 상남동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동 창원중앙역 세권 시대를 맞이했다. 신축 병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이며, 한강 이남 병원 기준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이다. 개원 후 코로나19로 혼란을 겪을 당시에도 일일 1만 명 검사,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으로 최단 시간 검사 결과를 내놓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정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듬해 담도·췌장 명의 김명환 교수 영입, 간이식 명의 주종우 교수 영입 등으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의료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왔다.

개원 30주년인 지금까지도 지역 인재 및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연간 20억 원 규모의 사회·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사업으로 사계(四季)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봄에는 지역 소외아동을 위한 소풍인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영화 관람과 호텔뷔페 식사를 제공하는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을, 가을에는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고 즐기는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해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학사업으로는 지난 2020년 창원대, 경남대 등 지역 4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 주요 대학에 장학금을 약정한 바 있다. 북한과 아프리카 등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활동은 물론 재난현장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포항공과대학교와 100억 원 약정을 통하여 의과학자 양성과 의과학·의공학 분야에 인류발전을 위한 공학 기반의 혁신적 의학 교육과 연구에 지원했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부산대학교와 100억 원 약정으로 의과대학 연구 교육 혁신 및 장학기금을 지원했다. 2024년 3월, 창원한마음병원의 전신인 상남한마음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의료원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두 개의 병원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2021~

- 2021. 03.**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확장 이전 개원
- 2021. 07.**
창원한마음병원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 (예술직 정규 직원 채용)
- 2021. 11.**
포항공과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 약정
- 2021. 12.**
최경화 이사장
국민교육발전 유공 국민포장 수훈
- 2022. 01.**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 약정
- 2022. 02.**
창원한마음병원 확장 이전 개원 후
분만 1,000건 달성(1995~2024. 4., 분만건수 총 34,637건)
- 2022. 03.**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2 사회책임 부문 선정
- 2022. 04.**
보건복지부 지정 경상남도 광역아동학대전문의료기관 지정
- 2022. 07.**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 1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 2022. 08.**
담도·췌장 명의,
서울아산 김명환 교수 진료 시작



2024. 03.

개원 30주년

- 2022. 09.**
· 여성의학센터 다빈치 로봇수술
200례 달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은상 수상
- 2022.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 2023. 01.**
·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획득(경남 1위, 전국 8위)
· 창원한마음병원 장기이식센터 개소



- 2023. 02.**
· 여성의학센터 다빈치 로봇수술 300례 달성
· 심뇌혈관센터 혈관중재술 1만례 달성
- 2023. 03.**
첫 생체 간이식술 성공
- 2023. 10.**
간담도췌장센터 췌장·담도
내시경 시술(ERCP) 1,000례 달성

- 2024. 02.**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취임식 개최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하충식 의장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최경화 이사장
한마음의료원 하창훈 의료원장
창원한마음병원 김명환 병원장
상남한마음병원 박인성 병원장)

- 2024. 03.**
상남한마음병원 개원(262병상 규모)

- 2024. 04.**
장기이식센터 고난도 간이식술 총 15례 시행



창원한마음병원은 '의사는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찾는 숭고한 직업'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는 병원이다. 하충식 의장이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공동체와 함께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고자 하며, 경남지역은 물론 세계를 목표로 인술보국(仁術報國)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하충식 의장은 지금껏 실천해온 '아이들에게 성장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명감으로 향후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위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한마음인의 푸른꿈, 세계로! 미래로!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 2030년, 3,000병상'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KOREA TOP 20'이라는 그랜드 비전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의료계 신화를 쓰고자 한다.

1994? 2024!

한마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한마음의 변화와 발전상을 한눈에 알아보는 코너!
개원 초부터 확장 이전 개원한 지금까지 한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성장을 이루어왔는지 주목해 보자!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사람들 (2024. 4. 기준)

총 재직자수

1,749명

창원한마음병원 1,637명
상남한마음병원 112명



시설 및 의료진 규모(상남한마음병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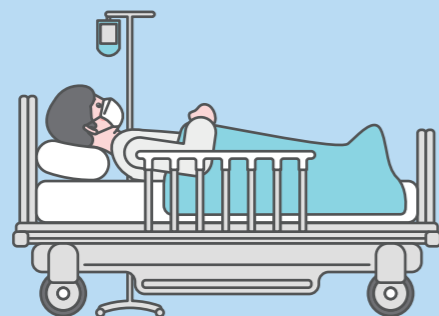
진료센터
30개

진료과
35개
(상남한마음병원 진료과 8개)

의료진
115명
(상남한마음병원 의료진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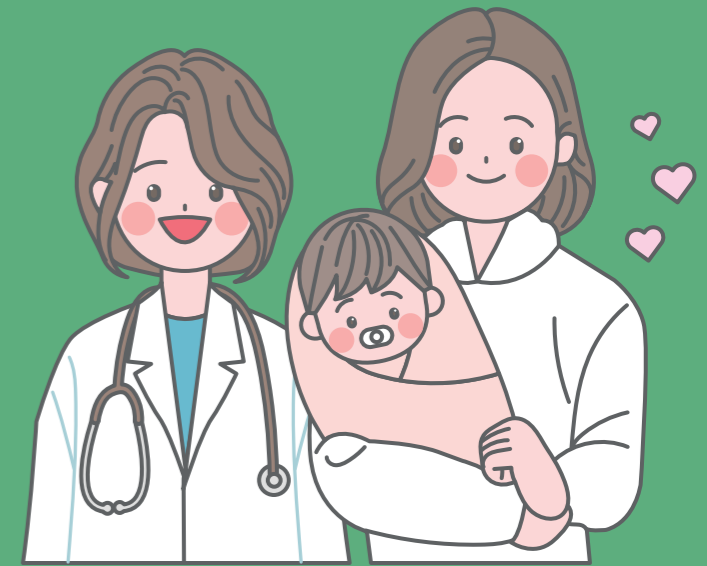
1994 4병상
1995 79병상
2001 257병상
⋮
2024

1,270병상



- ✓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 광역아동학대전담병원 (새싹지킴이병원)

탄생부터 노년까지 함께하는 병원



산부인과

최근 분만 건수 (2021~2024. 4.)

2021 1,026건
2022 1,313건
2023 1,344건
⋮
총

4,063건

분만실 총 분만 건수 (1995~2024. 4.)

34,637건

최근 여성질환 로봇수술 건수 (2021~2023)

2021 92건
2022 153건
2023 172건
⋮
총

417건

창원 최다
산부인과 전문의
10인 보유

다빈치 로봇수술

300례 달성

(2023. 2.)

최근 난임시술 건수 (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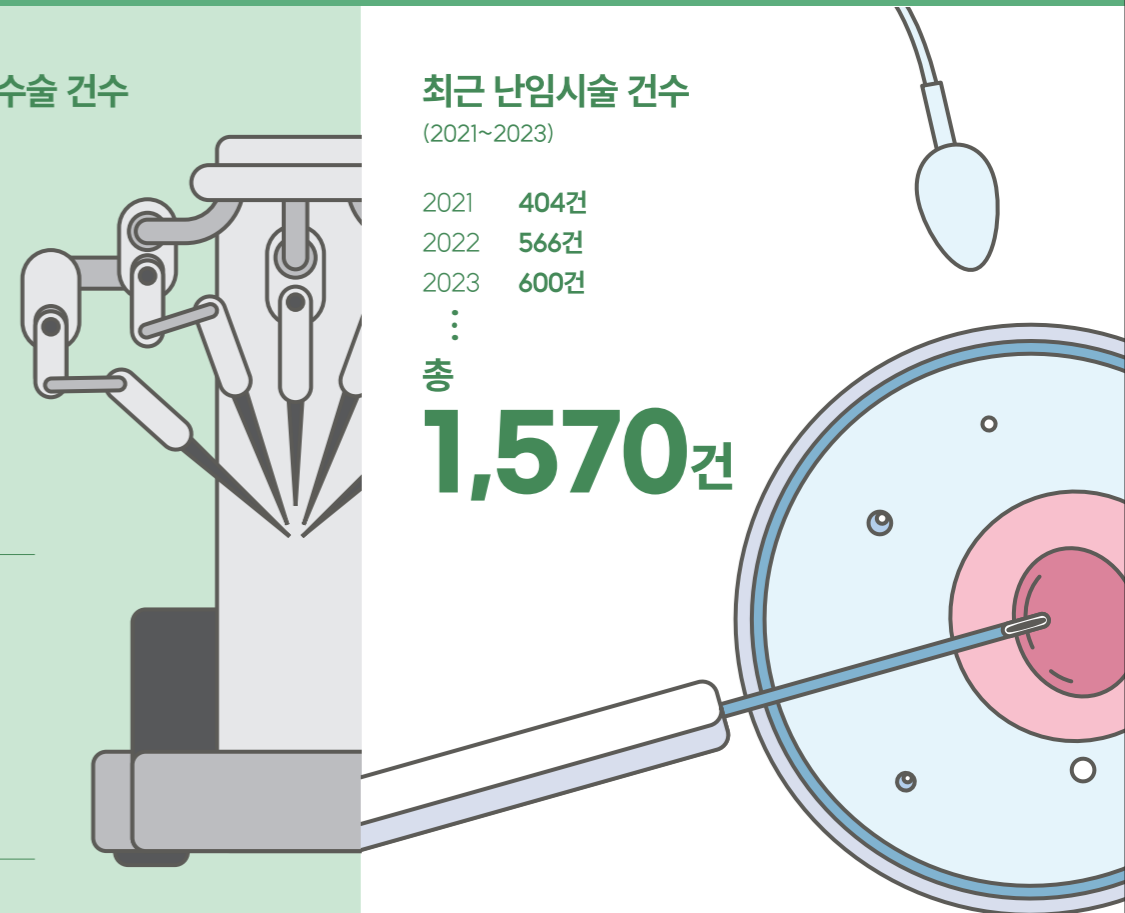
2021 404건
2022 566건
2023 600건
⋮
총

1,570건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평가지표)

1등급

(202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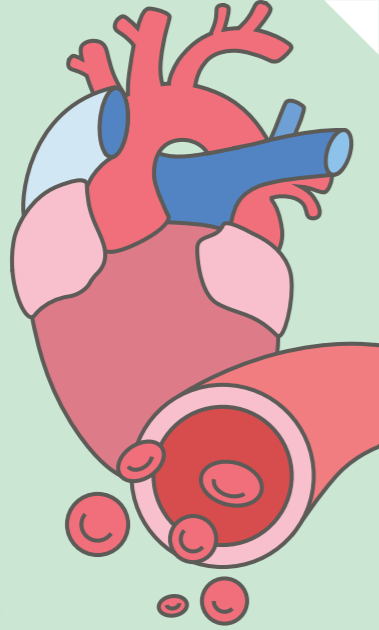
생명 유지의 골든타임, 순환기내과

혈관중재술 건수 (2021~2023)

2021 2,013건
2022 2,299건
2023 3,078건

∴
총

7,390건



국제 고난도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연회 (CCI) 개최(2023. 10.)

혈관중재술 10,000례 달성 (2023. 2.)

간·담도·췌장질환 중심 소화기내과

최근 담도·췌장 내시경(ERCP) 건수 (2021~2023)

2021 433건
2022 1,377건
2023 2,784건

∴
총

4,594건

10개월간 ERCP 1,000건 달성 (2023.1~2023.10.)



철저한 술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계의 꽃 외과

최근 수술 건수 (2021~2023)

2021 8,345건
2022 10,444건
2023 12,576건

∴
총

31,365건

로봇수술실, 하이브리드수술실 등 15개 수술실 운영



한마음을 이루는 주요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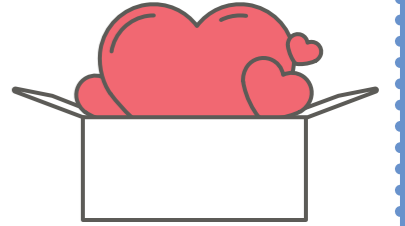
최적의 의료 '인프라'



- 창원중앙역 도보 10분 거리
- 호수와 공원에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인 병원
- '창원한마음병원-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창원호텔'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352억 원'

(2023. 12. 기준)



-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 총 352억 원 지원
- 사계절 아동 초청행사(놀이동산, 영화체험, 체육대회) 등 사회공헌 수혜인원 20만 명
- 아동,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국내 최초 '기업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 2021년 7월 장애인 25명 정규 직원 채용
- 2022년 7월 창단 1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개최
- 2022년 9월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트루컴퍼니' 은상 수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국가 기념식에 초청받아 63스퀘어에서 공연

부산대학교 100억 원 약정 등 대규모 장학사업



- 포항공과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각 100억 원 발전기금 약정
- 인근 지역 대학 및 경남·부산지역 소재 초·중·고교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자 및 취약계층 장학생 선발 지원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CEO



- 하충식 의장, 2011년 제1회 국민추천 국민포장, 2019년 국민추천 국민훈장 수훈
- 최경화 이사장, 2021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국민포장 수훈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최경화홀, 부산대학교 법전원 하충식홀 개관

지역민의 평생건강파트너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단일 기관 일일 최다 검사 건수 기록(11,016건)
- 2024년 3월, 상남한마음병원 개원(한마음의료원 체제 구축)
- 시립마산요양병원, '전국에서 치매환자 가장 잘 보는 병원' 5년 연속 선정
- 시립마산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카테고리로 읽는 한마음

한마음이 지닌 최대, 최초, 최고, 최신 키워드

The Big

한마음이 고객에게
최대 규모로 지속해온 서비스·활동

- 의료** 전국 일일 최다 코로나 검사 건수(11,016건)
- 의료** 경남 내 분만 건수 최대(1995~2024. 4., 총 34,637건)
- 의료** 경남 최대 규모 사각형 챔버타입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 의료** 창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최다 병상(491병상) 운영
- 공헌** 직장인 동호회(나라사랑회) 최장 자원봉사 한국 기네스 인증
- 공헌** 누적 사회공헌액 352억 원, 20만 명 수혜
- 공헌** 연중 20억 규모 사회·장학사업 실시, 교복비 10년간 20억 지원
- 시설** 한강 이남 병원 중 의료기관 단일 건물 최대 규모
- 행사** 창원한마음병원 신축 기공식 최다 인원 시삽(2,016명)

The Best

한마음이 비교 우위를 선점하며
실천한 서비스·활동

- 의료** 지역응급의료센터 성과 평가 2년 연속 A등급, 도내 1위
- 의료** 시립마산요양병원 위탁운영, 5년 연속 성과 평가 전국 1위
- 의료**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평가지표 1등급
- 의료** 관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총 1,083개 협력 의료기관)
- 공헌** 부산대학교 의대 동문 기부금 중 최고액 '100억 원' 기부 약정
- 시설** 국제학술 및 의료관광 인프라 보유(호텔 보유)
- 시설** 제9회 창원시 건축대상제 대상 수상
- 인프라** 제3광역단위 환자의 유입 뛰어난 기능적 접근성(KTX) 보유

한마음에는 숨은 이야기가 많다. 확장 이전 개원하면서 건물의 웅장함과 쾌적함에 먼저 주목하지만, 한마음은 개원 이래 최대 규모로, 누구보다 빠르게, 비교 우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의료기관이다. 4병상에서 시작된 한마음 이야기, 그 저력을 다음의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담았다.

The First

한마음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선점해온 서비스·활동

- 의료** 전국 최초 난소암 환자 출산
- 의료** 전국 최초 중증빈혈/허혈성심장질환 대장암 환자 무수혈 수술
- 의료** 관내 최초 급성기 의료기관 의료원 경영체제 구축
- 의료** 관내 최초 대한체장담도학회, 고난도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연회 개최
- 공헌** 전국 최초 기업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 공헌** 부울경 의료기관 최초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트루컴퍼니' 은상 수상
- 수상** 제1회 국민추천 국민포장(하충식 의장), 2021 국민교육발전 유공 국민포장(최경화 이사장)
- 업적** 4병상에서 1,008병상 규모로 성장, 우리나라 의료에서 뛰어난 업적

The New

한마음이 최근 더 발전적으로
행해온 서비스·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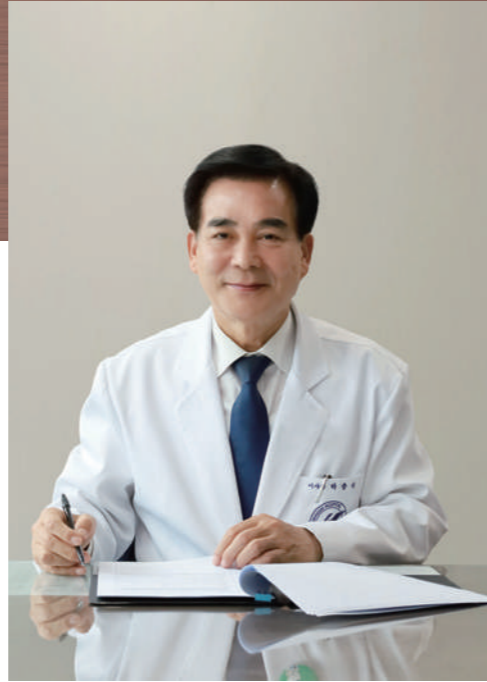
- 의료** 2024 간이식술(뇌사자 간이식, 혈액형 불일치) 15례 달성
- 의료** 2024 6대병원 운영(뇌, 심장, 암, 여성, 중증외상, 척추관절)
- 의료** 2023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도입
- 의료** 2023 혈관중재술 1만례, ERCP 1,400례 달성
- 공헌** 2024 직원 자선바자회를 통한 기부금 모금 및 전달식 개최
- 공헌** 2023 청소년(위기청소년) 치유의 밤 개최, 2년 연속 후원
- 공헌** 2022 광역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현재, 새싹지킴이병원)
- 복지** 2024 전직원 아이 1인당 출산 시 출산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인사말

여러분, 항상 꿈을 꾸십시오

하
충
식
한
마
음
국
제
의
료
재
단
의
장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겨울을 지나 새로운 싹을 틔우는 에너지를 보고 있다면, 생명의 강인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이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탄생과 성장을 거쳐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1994년 창원고려병원 내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한 것을 시작으로 명서동, 상남동을 거쳐 지금의 사림동으로 터를 옮기며 한 해 두 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었다고 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확장 이전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확장 이전 2년 차에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하고 '의료계의 종합예술'이라 일컫는 첫 생체 간이식술에 성공했고, 책장·담도 분야 등에서 대거 명의를 영입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수도권에서 찾는' 병원이 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을 이루었습니다. 한마음의 산 역사이자 지역민의 오랜 건강파트너인 상남한마음병원이 다시금 문을 열면서, 관내 최초로 창원한마음병원과 상남한마음병원이 하나 된 의료원 체제로 더욱더 특화된 의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이 멈추지 않고 성장한 것은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한마음이 "꿈을 가지고, 절실하게 임해 온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호트 격리, 코로나19 등 위기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병원이 급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진, 최단 시간 검진 결과 제공 등 한마음의 위기 극복 사

례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도 기록될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경남 도민의 '믿음'과 '사랑', 의료진의 '정성'과 구성원들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음을 잘 압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밤낮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함께해준 한마음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30년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 둘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은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자 핵심 가치요, 자신감입니다.
 - 셋째,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와 나의 꿈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 넷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 이것은 꿈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마음이 이러한 꿈과 지혜를 지니고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전 인류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1,008병상을 넘어 3,000병상, 경남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고 아시아 의료 허브가 되기 위해, CEO로서 저 역시도 매 순간 꿈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갑시다.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인사말

고객에게 열려 있고, 내일이 기대되는 병원으로 도약하기를

최
경
화
한
마
음
국
제
의
료
재
단
이
사
장



안녕하십니까, 최경화 이사장입니다. 병원이 성장하는 만큼 '기록'에 대한 의미가 더 커지는 듯합니다. 순간을 기록하는 데 글과 사진이 소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마음 30주년의 한 획을 써 내려가는 지금,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병원이 확장 이전 개원한 지 올해로 3년, 1994년 개원으로부터는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님에도 돌이켜보면 찰나의 순간처럼 짧게만 느껴집니다. 한마음은 항상 멈추지 않았고, 늘 최초였고, 지금도 꿈을 향해 달리는 중입니다. 지금처럼 늘 고객에게 열려 있고, 내일이 기대되는 병원이 되도록 모두가 힘을 보태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마음은 앞으로도 나날이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1994년 개원 당시 한마음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점차 병상 수를 늘려가며 이제는 뇌, 심장, 중증외상·암 등 중증 질환에까지 고난도 술기가 가능해져 한마음이라는 브랜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비의료 부문에서도 한마음은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인 행복, 봉사, 노력, 사랑, 혁신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왔기에, 많은 이들이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으로도 한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30여 년간 이어오며, 한마음의 사회공헌에 참여한 수혜 인원만 20만 명에 달하니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과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정신력과 사랑을 지닌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30년간 받은 지역민의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개원 30주년의 의미 있는 해에, 또 다른 30년을 꿈꾸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마음 모두가 이 힘찬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민들에게는 언제나 우리 한마음이 평생 건강파트너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작은 한 방울이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4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마음이 역경을 이기고 성장해 온 힘은 ‘늘 한마음’에 있기에 우리의 성장을 잘 대변해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한마음은 지역 주민분들께 항상 질 높은 의료를 선물해 왔고, 어느덧 그 역사가 30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30주년을 계기로 창원한마음병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마음 가족 모두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힘찬 걸음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3월부터 한마음의료원의 의료원장으로 정식 취임하면서, 직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으로 매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조직이기에, 우리만의 경쟁력과 조직문화를 계승하고,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춰 의료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마음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고 혁신을 준비하는 ‘ONE TEAM’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가족들의 격려와 사랑을 젊은 열정으로 보답하여 반드시 한마음의 큰 뜻을 이루겠습니다.

의료원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께서서는 한마음 가족분들을 잘 섬기고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구성원의 말에 경청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조직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조직이 성장하는 만큼 구성원들 또한 성장하며, 서로가 더욱 강한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0년이 그러했듯 앞으로의 30년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보람과 결실이 뒤따르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한마음과 함께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큰 행복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원 30주년 기념사 및
의료원장 취임사**

**우리만의 경쟁력과
조직문화 계승하고,
의료 선진화에
앞장설 것**

한마음의료원 의료원장
하창훈



● **개원 30주년 기념사 및
병원장 취임사**

**주인정신,
소통의 정신,
소명의식이
우리의 경쟁력**

창원한마음병원 병원장
김명환



한마음 가족 여러분, 지난 30년 역사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더 큰 힘으로 결집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열정 그리고 용기가 오늘의 창원한마음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엄청난 진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우리를 믿고 찾는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진료, 1등 진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직원 여러분께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 정신이란 ‘내가 창원한마음병원의 주인이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주인 정신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긍정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 정신이 있으면 높은 책임감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분들에게 더 잘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정신을 갖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인 정신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원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성취를 위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소통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팀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은 팀워크를 강화시키고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병원 경쟁력을 높입니다. 병원 구성원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기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태도입니다. 병원의 경쟁력은 구성원이 원팀(one team)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에서 나옵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병원 문화를 만들어갈 때, 환자분들의 조속한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확고한 소명의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임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명의식은 녹록지 않은 병원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인정신과 소통의 정신, 소명의식으로 무장하고, 하늘을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청룡과 같이 창원한마음병원의 또 한 번 도약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힘껏 뛰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원 30주년 고객 축하 메시지

지역민을 위한 "평생 건강파트너"라는 이름으로 걸어온 30년.
그 시간을 함께해온 고객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한마음이 걸어온 길만큼 앞으로의 한마음에 대한 기대와 당부가 가득한 이들의 편지를 전한다.

구성 편집실

크게 의술을 베풀어 병을 다스리는 한마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창원한마음병원의 '한'이란 뜻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어디에도 창원한마음병원의 한자가 없어서 뜻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습니다. '클 한'인지 아니면 '하나 된 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크게 의술을 베풀어 의사·간호사·환우가 하나 되어 병을 낫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니 참 좋은 이름을 가진 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원한마음병원을 믿고 찾기도 하고, 주위 친구나 친척 혹은 지인들에게 내원을 권하는 이유는 큰 시설이나 30년 병원의 역사도 물론이지만, 의술과 인술을 베푸시는 존경하는 차성재 교수님과 친절하고 따뜻한 정지윤 매니저님의 존재 이유가 가장 큼니다.

의술이 뛰어난 의사는 주위에 많지만, 인술까지 겸비한 차성재 교수님과 같은 명의를 만나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살면서 신경(SK)·국세청·입시학원장 등의 직업을 가지면서 한 번도 제 직업에 불만이나 아쉬움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창원한마음병원 응급실에서 죽음과 맞닥뜨려 시급을 다투는 환자들을 기어코 살려내고야 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열과 성을 다해 공부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생명을 죽이는 칼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칼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야 마는 칼을 드신 존경하는 차성재 교수님과 신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정지윤 매니저님과 같은 천사들이 많이 계신 창원한마음병원이 참 좋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창원한마음병원의 개원 30주년을 다시 한번 더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고객 박 경 환 드림

지역의료를 선도하는 리더이자 책임병원으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앞장서 온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하충식 의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드리며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창원한마음병원이 더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여 지역의료를 선도하는 리더이자 책임병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마음고객 류 해 조 드림

씩을 틔운 후에 튼튼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향후 100년을 위해 나아가는 한마음이기를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하충식 의장님과 병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환자 보호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창원한마음병원이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고 씨앗이 싹을 틔운 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30년은 시작에 불과하며 한마음은 앞으로 100년 이상 더 나아갈 것입니다.

행복, 봉사, 사랑, 노력 그리고 혁신의 이념으로 많은 이들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고객 ○ ○ ○ 드림

함께한 30년이 더 많은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온 것은 한마음 가족 모두의 노고 덕분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애정으로 이루어진 30년, 그 빛나는 업적을 기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2005년 의장님과의 인연으로 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차 제공 봉사, 안내 봉사, 환자 돌봄, 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병원 주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제 삶의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고, 앞으로도 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보람찬 여정을 함께한 모든 의료진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한 30년이 더 많은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한마음주부대학봉사단 강 점 둘 회장 드림

Medical Focus

창원한마음병원, 경남의 간이식술 새 지평 열었다

구성 편집실

- ✓ 혈액형 불일치, 복부를 절개하지 않는 복강경 절제술 등 고난도 간이식술 성공
- ✓ 뇌사자 간이식술 포함 총 15례 간이식술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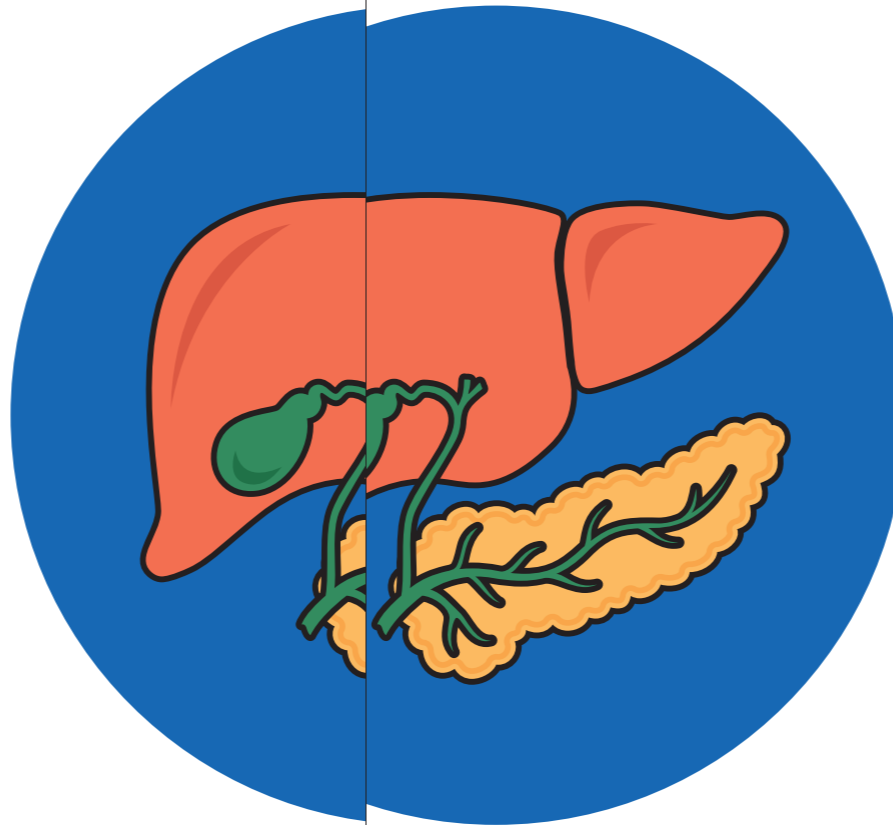
창원한마음병원이 지난해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한 후, 외과 주종우 교수 집도 하에 꾸준히 고난도 간이식에 성공하고 있다. 간담체 간이식 외과에서는 지난 1년간 총 15차례 간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5례는 응급뇌사자 간이식이었고 10례는 생체 간이식이었다. 10례의 생체 간이식 중 8례는 복강경 기증자 간 절제술이었고 절반이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이었다.

4월 중순에 시행한 생체 간이식은 말기 간경화와 진행성 간암을 앓는 형에게 동생이 간을 기증한 사례다. 간이식 전에, 우선 형의 진행성 간암의 종양 활성도를 조절하기 위해 단계적 고주파 시술로 간암 수치(AFP)를 4088에서 21까지 감소시켰고, 동생은 90kg의 과체중에 지방간이 심하여 두 달간 20kg 감량으로 지방간을 거의 없앴다. 동생의 수술(복강경 기증자 수술)은 네 시간 만에 이루어졌고 형의 수술(수혜자 수술)은 6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생은 10일 만에 퇴원하였고 형은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AFP 수치는 2로서 극히 정상 수치다.

지난 3월에는 2주간 무려 4례의 응급뇌사자 간이식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환자가 의식이 없고, 간 신부전(간부전으로 인하여 신장 기능까지 없는 상태, 대부분 2주 안에 사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중에 한 환자는 한 달 만에 퇴원하였고 나머지 세 명은 병동에서 양호한 상태로 회복 중이다. 그중 간성 혼수로 의식이 없던 76세 고령 환자도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상태로 회복되어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다.

간이식술을 집도한 주종우 교수는 “뇌사자 간이식은 우리나라에서 위중한 환자에게 시행하기에 성공률이 떨어지지만, 한마음에서 시행한 응급뇌사자 간이식 5례는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장기이식센터, 수술실, 중환자실, 이식 병동 등의 간이식 프로그램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해 1월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했고, 주종우 교수 집도 하에 첫 생체 간이식술에 성공한 후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술, 복부를 절개하지 않는 복강경 절제술 등 고난도 간이식술에 연이어 성공하며 지역에서의 간이식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알프스 수술법’을 활용해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대장암 간전이 환자의 수술에도 성공하면서 치료가 절실한 간 질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간이식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우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췌장·담도 내시경 시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좌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주종우

창원한마음병원 장기이식센터 및 진행성 간·담·췌암 치료센터 교수

간담도 췌장의 양성질환/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암, 간전이암과 같은 각종 암의 치료/ 고난도 간이식술을 시행하는 특성화센터다. 2023년 1월 장기이식센터 개소 후 2월 첫 생체 간이식술에 성공한 후, 연이어 고난도 간이식술에 성공하고 있다. 센터를 이끄는 주종우 교수는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알프스 수술법을 도입했으며, 간이식술 집도 500례 이상 이르는 간전이암·간이식술 명의다.

창원한마음병원, 췌장·담도 내시경 시술(ERCP) 1,400례 달성

- ✓ 김명환-황준성 교수팀, 10개월 만에 1,000례 달성 후 계속해서 증가세
- ✓ 부·울·경 전체 병원(대학병원 포함) 가장 많은 수치

창원한마음병원이 췌장·담도 내시경 시술(이하 ERCP) 1,400례를 달성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만에 1,0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RCP는 고난도 술기로 알려진 만큼 이번 결과는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다.

김명환 병원장과 황준성 교수 주축으로 한 간담도췌장센터 내과에서는 췌장암과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 담도(담낭) 및 췌관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 및 치료하고 있다. 췌장암 및 담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췌장·담도 내시경(ERCP) 및 초음파 내시경(EUS) 시술을 활용하는데, 담관 및 췌관을 내시경으로 촬영하여 내시경만으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ERCP는 십이지장에 삽입한 내시경을 통해 담도계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촬영한다. 담도계 및 췌관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필수적인 수기로 담관염·담도암, 췌장염·췌장암 등 담관이나 췌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경우에 시행한다. 조직 검사를 통해 염증과 암을 감별하며, 협착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담즙이나 췌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김명환 병원장은 이번 성과에 관해 “ERCP 1,400례를 달성한 것은 부울경 전체 병원(대학병원 포함) ‘TOP 3’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수치이다”라며 “그간 창원한마음병원 간담도췌장센터가 크게 성장했으며, 그 상징의 하나인 ERCP 시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ERCP팀의 간호사, 기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초음파 내시경 검사(EUS)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450건이 시행되었고, 이중 2/3는 단순 관찰이 아닌 조직 검사(췌장암 감별 목적)나 치료 목적으로 행해졌다.

김명환 병원장은 “EUS는 ERCP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는 내시경 검사로, 특히 췌장암과 염증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기이다. 창원한마음병원의 EUS 조직 검사 정확도(췌장암 진단 목적)는 거의 100%에 육박하여 국내 TOP 수준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김명환

창원한마음병원 병원장, 간담도췌장센터 교수

담도(담관)나 췌장질환에서 암과 염증에 관한 정확한 감별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특화센터다. 김명환 병원장이 제자인 황준성 교수와 함께 간담도췌장센터의 ERCP/EUS 시술팀을 이끌고 있다. 김명환 병원장은 제18회 분취의학상 수상자이자 국내에서 췌장암을 가장 많이 조기 발견하여 완치시킨 인물이다. 또한, 국내 체외충격파시술 도입으로 췌장 결석 내시경 제거율을 50%에서 80%로 향상하는 등 췌장염 치료에 크게 기여한 췌장·담도 명이다.



Medical Focus

개원 30주년 창원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으로 의료원 체제 구축

구성 편집실

- ✔ 한마음의료원 산하 창원한마음병원-상남한마음병원 개원
- ✔ 4병상에서 1,008병상 규모로 성장, 2030년 3,000병상으로 규모 확대할 것
- ✔ 상남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총 8개 진료과 개설

창원한마음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데 이어 지난 3월 2일,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으로 한층 더 크게 도약했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장 하충식) 산하 한마음의료원 체제로 두 개의 병원(창원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을 운영하면서 창원지역 최초 의료원 체제(급성기 병원 기준)를 구축하게 됐다.

1994년 개원한 창원한마음병원은 봉곡동과 상남동을 거쳐 지난 2021년 3월 2일, 사림동에 확장 이전 개원하면서 1,008병상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뇌·심장·중증외상·암 등 중증질환에 관한 의료를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며,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간이식술 성공 등으로 높은 의료진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재 창원한마음병원 병상 가동률은 98%에 육박한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상남한마음병원이 개원하면서 더욱 뜻깊은 해로 자리하게 됐다. 상남한마음병원(상남동)은 창원한마음병원의 전신으로, 지난 2년간 새로운 의료 시설 구축을 위해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개원했다. 이번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안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창원한마음병원은 기존 35개과, 1,008병상을 정상 운영하고, 상남한마음병원은 총 8개과, 262병상 규모로 신규 개설하여 지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소아청소년과도 포함이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하충식 의장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남한마음병원을 개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창원한마음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남한마음병원은 지역밀착형 진료로 비교적 경증의 질환을 중심으로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 2월 29일,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창원호텔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하충식 의장을 비롯해 창원한마음병원 및 상남한마음병원 주요 인사들과 간부들이 참석했다. 새로운 의료원 체계가 구축되면서 의료원 및 창원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 취임식도 함께 거행됐다. 이로써 3월 1일부로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이사장에 최경화(前 한마음의료원 의료원장) ▲한마음의료원 의료원장에 하창훈(前 창원한마음병원 상임이사) ▲창원한마음병원 병원장에 김명환(前 창원한마음병원 소화기병원장) ▲상남한마음병원 병원장에 박인성(前 창원한마음병원 병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지난 30년간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온 만큼 창원한마음병원은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라는 미션을 세우고,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로써 경남 No.1을 넘어 'KOREA TOP 20'이라는 그랜드 비전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예정이다.



66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남한마음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앞으로 창원한마음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남한마음병원은 지역밀착형 진료로 비교적 경증의 질환을 중심으로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99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의 중심은 의사다. 환자의 상태를 순간순간 판단하고 처방한다. 더불어 최측근인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간호 및 처치를 시행하며, 응급구조사, 보조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환자가 응급실을 벗어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핀다. 응급실에서의 하루란, 언제, 어떻게,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예측할 수 없어 때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이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언제나 응급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응급 의료 인력의 마음가짐이다. 응급실의 하루 24시간을 소개해 본다.

글 응급의학센터 김명옥 수간호사 사진·구성 김민정 홍보파트장

24시간 빛나는 사람들

창원한마음병원 응급의료센터의 하루

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과 교수진 10명, 간호사 40명, 응급구조사 5명, 보조원 5명이 함께 근무한다. 응급의학센터의 중심인 교수님들의 근무는 2교대로 돌아간다. 교대 시간은 아침 8시, 저녁 6시이다. 평일 이브닝 담당 교수님들의 근무는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다. 업무 시작 전 간호사들은 모든 의료기기 및 E-box를 점검한다. 비품, 소모품, 소독 물품을 확인하면서 유효기간도 점검한다. 처방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모든 행위를 교대할 때마다 반복해서 시행한다.



07:00 a.m.

오전 7시, 응급실 간호사의 교대 시간이다. 서두른다. 나이트 근무(10:00 pm~07:00 am)를 한 간호사들을 쉬게 해줘야 한다. 이들이 일하는 야간에는 수간호사도 없고, 책임간호사(우리 병원 응급실은 정경주 책임간호사가 맡고 있다)도 없는 시간이라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간호사건 의사건 수간호사인 나에게 말할 무언가를 늘 준비하고 있다.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말할 것을 잔뜩 쌓아둔다.

08:00 a.m.

수간호사인 나의 출근 시간이자 교수님들의 교대 시간이다. 우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느라 고생하신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넨다. 그리고 난 뒤 당일 타 부서와 조율할 내용을 정리한다. 각종 민원도 보고 받는다. 교수님을 포함해 모든 선생님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수간호사인 나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말한다. 이는 간호사, 진료부, 보조원 여사님, 반장님 할 것 없이 모두 해명에 나선다. 수간호사인 나는 그 말에 고생했다고 말하면서도 환자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해본다.



03:00 p.m.

한 번의 바람이 지나가고, 다시 응급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는 시간이다. 이브닝 근무시간은 밤 10시까지인데, 응급실이 가장 바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0시다. 가능한 한 내일의 응급을 위해 수간호사인 나는 저녁 8시 전에는 웬만하면 탈출하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실패다. 이후의 시간은 24시간 계속되는 응급이라는 링 위의 싸움이다. 응급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환자의 평온과 우리 응급 인력들의 열정이 지지치 않기를 바랄 뿐. 어찌 됐건 응급실에서의 가장 보람된 순간은 "환자의 심장이 뛸 때"다.



09:00 a.m.

병실이 없어서 대기 중이던 환자들을 위해 원무팀과 힘을 합쳐 병실을 정하는 시간이다. 원무팀에 응급실 원무과 출신들이 많아서인지 응급실의 상황을 정말 많이 이해해 준다. 외래 선생님들 또한 정말 최선을 다해 협진을 돕는다. 가끔 응급실에 평온이 찾아올 때면 바빠 돌아가는 외래를 지나가 보곤 한다. 그 평화에는 오랜 여유란 없다. 외래가 바쁜 만큼 기다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그사이 힘들어하는 환자들 발생하고, 그럼 다시 응급실이 바빠진다. 구급차를 타고 오는 중증 환자들, 걸어서 들어오는 응급환자들, 응급실 문 앞 택시에서 내리는 응급환자들, 갑자기 발생하는 외래 응급환자로 응급실은 잠깐 누렸던 평온의 시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시곗바늘도 더디게 간다. 아직 11시가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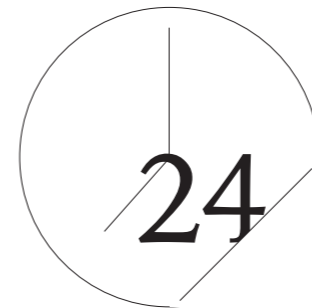
09:00 p.m.

나이트 번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진정한 응급의 시간이다.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급성이 많고 시각을 다루는 경우다. 응급실 의료진에게는 강심장과 체력, 급한 성격과 세심한 눈치, 모두 필요하다. 또한, 응급구조사, 보조원이 한 팀이어야 한다. 주치, 거기에 상해까지 더해지면 정말 답이 없다. 이때는 누구랄 것 없이 위험해질 수 있다. 나 또한 환자에게 맞아 정신을 잃었더랬다. 그보다 직원들이 다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같이 아프다. '응급실이니까' 하고 속명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도 의료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위를 결심으로 살핀다. 내 안위를 우선하다가는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이렇게 긴박함과 평온함의 반복 속에 응급의 밤이 흘러간다.



01:00 p.m.

정신을 차려본다. 원래대로라면 잠깐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밥시간이다. 응급실은 밥심으로 일을 한다. 한창 바쁜 상황이 지속되면 직원들의 아드레날린이 증가한다. 또다시 서로의 눈에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서로의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그런 다음 날은 반드시 면담의 굴레에 빠지게 되므로 응급실은 가능한 한 굶지 않는다. 응급실 간호사 테이블에는 각종 간식, 특히 젤리와 사탕이 많다. 업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리고 오후 2시만을 기다린다. 이브닝 근무(02:00 pm~10:00 pm) 교수님과 간호사들, 응급구조사, 보조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의사건, 간호사건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다. 퇴근 시간도 보인다.



언제나 그랬듯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애쓰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 속에 언제나 바빠 돌아가는 응급의 하루는 이렇게 매일 반복된다. 응급실은 팀플레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팀플레이가 잘 이루어졌기에 확장 이전 개원 후 2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하며 경남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모든 한마음 사람들,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모두의 평안을 바란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질환,

당뇨

당뇨에 관한 OX



국내 당뇨병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 이상이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 결과도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당뇨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무절제한 식습관 혹은 여러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 당뇨!
당뇨에 관한 진실을 OX로 알아본다.

글 기획홍보팀 하승학 매니저
도움말 창원한마음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성돈 교수



Q. 단 음식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A. **O**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탕후루, 탄산 음료, 디저트 등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여 비만이 될 확률도 올라가며 비만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뇨는 유전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 관리로 예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 마른 사람은 당뇨 확률이 낮다?

A. **X**

마른 체형이라고 당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은 서양인과 비교해 체장의 크기가 다소 작은 편이며 인슐린 분비량 또한 서양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화된 음식들(고탄수화물 식단)을 수월히 소화하기 어려워 몸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말라보여도 내장비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체내 과도한 지방들은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마른 사람도 혈중 당 수치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Q. 당뇨병도 유전이다?

A. **O**

당뇨는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병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님 모두가 당뇨라면 30% 정도, 한 분만 당뇨라면 15% 정도의 확률로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 요인(무절제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을 잘 관리하지 않은 경우, 발병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이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당뇨 환자, 단 과일 먹어도 된다?

A. **O**

당뇨로 내원한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단맛이 나는 과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사과, 참외, 배와 같이 단단한 과일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2회 이내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양만 소량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수박, 바나나, 백도 복숭아와 같이 부드러운 과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일은 당분 흡수가 빨리 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Q. 당뇨 환자, 그냥 콜라보다 제로 콜라가 낫다?

A. **X**

제로 콜라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음료지만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도 혈당을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이 없어도 우리 몸은 '단맛'에 반응합니다. 게다가 단맛은 다른 여러 자극적인 음식들에 대한 욕구도 끌어올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로 음료가 당뇨병 유발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먹고 싶을 때는 그 대안으로 탄산수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Q. 당뇨병은 암처럼 심각한 질환이 아니다?

A. **X**

당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혈중 당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거나, 몸이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당뇨에 걸린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실명, 궤양, 심근경색, 발 괴사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혈당이 높은 편이라면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Q. 당뇨병은 약 안 먹고 관리할 수 있다?

A. **O**

당뇨는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다만,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병한 2형 당뇨인 경우, 건강한 식습관, 운동, 숙면 등 좋은 생활 습관을 지속한다면 약을 안 먹고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이 필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당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糖尿 당뇨병 예방 수칙

- 1 규칙적인 운동
- 2 간식 줄이기
- 3 스트레스 관리
- 4 충분한 수면
- 5 금연

창원한마음병원 장기근속자 수기

창원한마음병원의 숨은 영웅,
11인을 소개합니다!

“인사가 만사다[人事萬事]”라는 말이 있다.

개원부터 지금까지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며 병원의 성장을 지켜온 이들.

총 11인의 장기근속자 수기로 지난날 한마음의 희로애락을 읽어본다.

구성 편집실

꿈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 그 습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

창원한마음병원의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직원으로 처음 봉곡동에서 지금까지의 발전과 성장을 같이 해온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창원한마음병원 직원이 되었을 때 하중식 의장님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대한 포부를 말씀하셨고 그때 모두가 ‘돈 키호테’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계속 변화했고 봉곡동에서 상남동으로, 상남동에서 또 한 번 증축이 이어졌으며, 지금 이곳 중앙역세권에 창원한마음병원이 다시 탄생하는 등 꿈은 현실이 되었고, 꿈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항상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었으며 힘든 여러 상황도 많았지만, 위기들이 항상 새로운 도전이 되었고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남동에서 사립동으로 확장 이전한 후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국적 감염은 분명 위기였지만, 코로나 검사의 긴 행렬은 또 한 번 모두를 하나로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에서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항상 기록을 해보길 권합니다. 기록을 하는 것은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에 따른 노력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하게 되고, 그 습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봉곡동에서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30년 후 또 30년 후의 변화를 후배들에게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30년은 또 다른 한마음인의 노력으로 변화하여 세계로 미래로 향하고, 비교가 불가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을 축하드리고, 창원한마음병원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한마음의 원대한 꿈을 응원합니다!

이 혜 경 평가실장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의 선배로 남고파

개원 30주년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함께해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1995년 3월, <화인데이터>라는 병원 프로그램 운용 회사 직원으로 창원한마음병원 전산 개발에 참여했고 같은 해 7월, 창원한마음병원 관리팀 내 전산 담당으로 입사한 것이 한마음과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창원한마음병원의 신화창조 속에는 남모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MF 시절, 약품 원료 수급 문제로 운영비가 크게 오를 뻔했지만, 발 빠르게 약품 재고를 확보했고 오히려 이익을 남기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간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봉곡동 시절에는 노후화된 건물 속 열악한 환경에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5층 작은 골방 같은 사무실 책상 위에 서버급 PC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퇴근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서버 PC 위에 우산을 펼쳐 놓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천정에서 물 폭탄이 떨어졌고 바닥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산 덕분에 PC는 무사했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상남동으로 이전했고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해 증축을 했고 그 기반으로 2021년 3월, 지금의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전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코로나 드라이브스로 인해 위기를 극복했고, 2023년에는 병원의 위상이 급부상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나의 인생 전부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2030년 또 한 번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창원한마음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구매관리팀·시설관리단 김 종 진 이사



한마음, 수많은 처음의 기록이 있고 그 처음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병원

안녕하십니까? 1995년 8월 28일부로 한마음에 입사하여 29년을 함께한 강희순입니다. ‘하나’에는 여러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한마음은 그야말로 ‘처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병원입니다. 지역 최초로, 전국 최초로 일구어낸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직장인 동호회 최장자원봉사 한국신기록 인증, 2015년 9월, 병원 최초 아프리카 짐바브웨 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 2016년 의창구 용동 창원한마음병원 기공식 동일장소 최다동시 시삽 한국신기록 획득, 2022년 코로나 성지로 불리며 일일 검사 수 1만 명 기록 등 한마음은 처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처음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병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뜻, 마음, 생각이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 역시 한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600명이 넘는 직원 모두가 주역들입니다. 3주기 인증을 받을 당시 너무나도 짧은 준비 기간이라 인증을 받기에는 어렵겠다고 했던 때도, 확장 이전을 위한 기공식 후 공사가 멈추면서 모두가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다고 말하던 때도, 우려와 달리 잘 준비하고 마무리 지은 일 등 모두 한마음에서 성과를 맞출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한마음의 ‘처음’과 ‘함께함’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시아 의료허브! 2030년 3,000병상 실현을 향한 한마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진료협력센터 강 희 순 前 대외협력본부장



길을 함께 가는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1995년 9월 22일, 6년 차 간호사로 봉곡동 창원한마음병원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직원의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미만으로 이루어져 늘 활기차고 힘이 있었습니다. 진료는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환자가 넘쳐나 외래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의약분업 전이라 약국과 외래, 주사실을 오가며 서로 도우면서 당직을 하였고 의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이 열심히 환자를 돌본 덕택에 산부인과, 소아과 중심으로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들이 모여 2001년 12월 상남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멀리 안쪽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환자 유치를 위해 의장님 주재 간부들이 대책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안 되어 산부인과, 소아과 환자들이 모여들고 병실이 모자라 신관 오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의료기관인증평가 1주기 인증 획득했을 때,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바깥의 시선과 내부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해보자는 의지로 원팀이 되어 해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인증평가를 받을 때도 한마음으로 모두 합심하였고 어느덧 4주기 인증평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0년, 지금 위치로 이사하던 날 모두 지쳐 있었지만, 가족들의 힘까지 보태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고 코로나 드라이브스루 활성화로 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의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한 몸이 되어 극복해 내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 병원은 항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힘을 합쳤습니다.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노환유 행정원장님, 강관순 이사님, 안재형 실장, 안미연 팀장, 안운옥 수간호사와 지난 간호부서장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서 항상 같이 고민해주는 팀장님들과 수선생님, 간호사, 모든 직원이 애정을 바치고 있는 한마음! 입사 28년 차로서 나의 모든 애정을 바친 한마음이 항상 번창하기를 바라고, 한마음의 지난 여정에서 쉽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간호부 윤 연 옥 간호부원장



병원 성장과 함께한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자 창원한마음병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내 인생에 전부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한마음 가족의 일원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매일 손님맞이 준비로 병원 앞과 주변을 청소하고, 정문에서 90도 인사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봉곡동 시절, 창원한마음병원에서는 하루가 머다 하고 오래된 건물의 내부 보수공사를 하고, 겨울철에는 창문에 비닐 방풍막을 설치하면서 난방비 절감에 애쓰고, 2001년 12월, 상남동으로 이전한 후에도 병원 주위 수많은 전단을 줌과 병원 성장과 함께한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고 창원한마음병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상남동 허허벌판에 창원한마음병원이 신축 이전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995년 1월 개원 초부터 의장님께서 늘 “한마음 식구가 지금은 100여 명이지만, 언젠가는 2,000명, 3,000명이 되는 날 분명히 올 것이다” 말씀하시며 원대한 꿈과 희망을 한마음 가족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상남동으로의 신축 이전은 한마음 가족들에게는 큰 꿈과 희망이었고, 2009년 6월, 창원한마음병원 증축은 오늘의 창원한마음병원이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 나 역시 창원한마음병원과 함께 성장하면서 나의 작은 꿈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입사하여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창원한마음병원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직장생활이 힘들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지만 힘들었던 만큼 오늘이 있기까지 더 좋은 추억이 되어,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온 30년을 뒤로 하고 창원한마음병원의 새로운 꿈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 허브! 2030년 3,000병상, KOREA TOP 20”으로 성장하는 날까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팀 전 창 옥 팀장



제2의 번영은 지금부터 시작일 것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에 즈음하여 수기를 적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동안 상념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고 이젠 기억의 저편에서 끄집어내기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대 중반에 시작하여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나 창원한마음병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와 도전이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변화했고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이사장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들 또한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30년이 1세대의 노력으로 토대를 구축했다면, 이후 30년은 2세대의 역량이 발휘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항상 현실에는 부족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활해왔습니다. 추측건대 제2의 번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디지털 시대를 근거로 출발했지만, 진정 디지털 시대의 서막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의 동참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창원한마음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前 시설관리단장 강 관 순



이 순간에 힘을 보탠 것에 무한한 자부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우리 창원한마음병원이 2024년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탠 것에 대하여 한마음 인의 일인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1995년 1월 1일, 봉곡동에 병원을 열 때도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보란 듯이 이겨내었고 상남동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전할 때도, 그 당시에 허허벌판에 우리 병원이 제일 먼저 들어서서, 잘 되겠느냐는 주위의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우리 창원한마음병원을 경남의 중심병원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21년 3월에 현 병원으로 이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수한 의료진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 창원한마음병원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한마음병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의학팀 유 성 민 수석매니저



즐겁게 일을 배웠던 지난날이 다 모여 현재의 한마음이 되었다

먼저 30년의 여정에 저도 함께했다는 것이 기쁘고 감회가 너무 큼니다. 1995년 3월 1일, 나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기도 합니다. 흰 건물이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동료들과 선배가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응급실에 적응할 수 있게 일을 가르쳐준 나의 스승 이경란 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간호부원님과 저는 입사년도 동기이자 저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우산이 되어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오라버니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신 의장님, 이사장님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울고 웃으며 재미있게 병원생활을 했기에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처음 응급실에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경란 팀장님께 하나하나 배우면서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도와 달라고 요청해가면서, 정말 2교대 해가면서 집에도 안 가고 즐겁게 일을 배웠던 지난날이 다 모여 현재의 한마음이 되었다고, 모두가 웃으면서 그 시절을 알아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열정 그대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항상 그대로인 것 같고, 내 기억도 20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척추관절센터에 오시는 환자들도 거의 30년 세월을 저와 동고동락해온 환자들이기에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정도입니다. 우리 병원을 믿고 찾아주셨고 또 30년 더 긴 역사에 함께 저희 한마음 직원과 함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30년 멋지게 달려온 역사에 새로운 30년을 환자와 우리 한마음 식구들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달려 가보려 합니다.

척추관절센터 김 태 은 선임매니저



세월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조금씩 자라게 하는 것

20대 중반에 사회 초년생으로 첫 직장에 입사하여 벌써 중년의 50대가 되었네요. 1994년도 봉곡동 병원 같은 층에서 의장님과 근무한 것이 어제같이 느껴지는데 세월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IMF, 의약분업, 사스, 코로나 시절까지 역경을 넘어 병원이 성장 변화하는 모습이 주마등같이 느껴집니다.

나의 20대는 한마음의 유년기였고, 30대는 소년기, 40대는 청년기, 50대는 장년기로 그렇게 한마음과 함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세월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조금씩 자라게 하는가 봅니다.

30년 동안 무탈하게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힘써주신 의장님과 이사장님 이하 한마음 직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마음 직원들이 좀 더 즐겁고, 유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병원! 또한, 의료계 최고로서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의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더욱 노력하고 협력하는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으로 한마음인(人)으로서 더욱 전사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인생 시에서 보면 모든 직장인에게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나에게는 '그래도'라는 섬이 한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라는 섬에서 / 그래도 부동켜안고 /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진단검사의학팀 윤 상 철 수석매니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해온 30년, 지금도 그 꿈은 진행형

1995년 1월 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30년 창원한마음병원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은 일은 1995년 3월 1일, 봉곡동 2층 외래에서 직원 조례 때 의장님 훈화 말씀 중 "우리병원의 목표, 나의 꿈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남들은 허황한 꿈이라고 말했지만, 의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해온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은 진행형입니다.

봉곡동 시절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진료 교수님, 전 직원이 한 가족처럼 모든 결혼식, 자녀 돌잔치, 집들이 등을 챙겼고 병원 환자 유치를 위해 창원에서 하는 야구, 배드민턴, 축구동호회 등 다닐 수 있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야구대회 오픈 이벤트로 윤연옥 부원장님께서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 없이 일하는 나를 묵묵하게 이해하고 지켜보고 응원해준 나의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웃고 울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지금의 한마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우리 병원을 거쳐간 선배배 동료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고, 직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맡은 일의 주인이 되어 2030년 3,000병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의 창원한마음병원이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저 또한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일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30년 같이 동고동락한 소중한 직원 가족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간호부 이 경 란 팀장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다

주마등처럼 지나간 30년의 세월, 감회가 새롭고, 회로애락을 함께한 한마음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95년 1월, 79병상의 조그마한 개인병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1,008병상 규모의 경남 최고 병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의료 불모지 경남에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고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한마음의 역사를 만드는 장정에 미력하나마 함께한 데 무한한 영광과 보람을 느낍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내 창대하리라"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처음 시작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미미했을지라도 현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준비하였고 그 목표를 향해 치열한 전진을 계속하여 오늘날 자랑스러운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경화 이사장님의 섬세한 리더십과 자애심이 직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고, 묵묵히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한 한마음 가족의 힘이 발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책임자로서 하층식 의장님의 큰 뜻을 보필하면서 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 늘 미안하고 여운이 남습니다.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준 한마음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한마음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제2의 새로운 도약과 꿈을 꼭 실현하기를 소망합니다. 2030년 3,000병상, KOREA TOP 20!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를 꼭 실현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시립마산요양병원 노 환 유 행정원장



1994

한마음 '30주년', 한마음의료원 체제로 발돋움하다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한마음의료원 체제 출범

한마음의료원

미션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
그랜드 비전	KOREA TOP 20
비전	2030년 3,000병상

핵심가치	HAPPINESS 행복 직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병원	SERVICE 봉사 희생적인 봉사정신	LOVE 사랑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	EFFORT 노력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INNOVATION 혁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혁신
------	---	--------------------------------------	---------------------------------------	--	--

- 운영철학
- 환자를 내 가족처럼 21세기 스마트 병원
 - 첨단장비와 끊임없는 연구 결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
 - 이웃과 함께 더불어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 직원 모두에게 긍지가 되며 행복을 주는 병원
 -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병원
 - 창의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재를 키우는 병원
 -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창조의 병원

2024

2021년, 사림동으로 확장 이전 개원한 창원한마음병원에 이어 그 전신인 '상남한마음병원'이 2024년 3월 개원함에 따라 한마음은 '창원한마음병원'과 '상남한마음병원' 두 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관내 최초 한마음의료원 체제로 우뚝 선 한마음, 그 미래 발전상을 제시한다.

전국을 아우르는
중증질환 중심의
전문 의료서비스
창원한마음병원

총 30개 진료센터 35개 진료과 | 1,008병상 규모



지역을 아우르는
경증질환 중심의
지역맞춤형 의료서비스
상남한마음병원

총 8개 진료과 | 262병상 규모



Hello Again

Again 상남한마음병원!

2024년 3월, 경남도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상남한마음병원' 문 열다

2021년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창원한마음병원 개원으로 한마음의 새 시대를 열었을 때 상남한마음병원(창원한마음병원의 전신) 또한 개원을 향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으니

2024년 3월, 다시금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다.

글 상남한마음병원개원추진단 이강민 책임간사



지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의료서비스의 봉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위기'

2022년 '상남한마음병원'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개원추진단을 발족하여 개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분과의 분과장들과 경영진이 한마음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 2023년 개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3년은 전쟁으로 인하여(러시아-우크라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높은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결출하다 자부하는 기업도 운영이 힘든 해였다. 그로 인하여 2023년 3월 상남동 소재의 상남한마음병원을 개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도 세계적 상황으로 인하여 쓸쓸히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다 공감했었다. 건축자재 및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의료진의 구인 역시 전국적 난항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응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이 혼자 쓸쓸히 병원 앞을 지켰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현실에 마음이 더욱 비참할 뿐이었다.

기적을 만드는 다섯 가지 '행복, 봉사, 사랑, 노력 그리고 혁신'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는 모든 것은 시들기 마련이라 비록 한 해의 고비를 마시게 되었지만, 개원을 향한 노력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 올랐다. 매일 조금씩 손 보기 시작한 건물 내외부의 환경 미화는 마치 언제 문을 닫은 병원이었느냐는 듯 손색이 없었다. 혹자들은 좋은 값에 처분하는 게 좋지 않으나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 30년 세월 동안 한마음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지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더욱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추구하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저 먼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봉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무리수라는 의혹은 우리의 의지에 방해가 될 수 없었다.

상남개원추진단 발족과 개원 움직임

2022년 5월 20일,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 TF를 시작으로 개원까지 총 31회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단장을 중심으로 분과의 분과장들과 실무자들까지 개원을 위하여 장장 2년 가까이 되는 준비과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

정에 비록 의견 불일치와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은 고객에게 신뢰 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열정이었다. 추진단 회의를 통한 개원 준비의 시간은 다시금 그때의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켜 나날이 행복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한 명 한 명의 직원들은 병원 어딘가에 걸려있는 액자의 수처작주(數處作主)라는 글귀처럼 모두가 주인 된 마음이었으며 다시금 꿈을 꾸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총 8개 진료과, 병상 규모 262병상 오픈

그런 노력과 봉사, 행복의 순간들이 이어져 올해 3월 2일 병상 규모 262병상, 총 8개 진료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로 수준 높은 전문의를 구성하여 개원했다. 진료과 외 특화된 인공지능실, 전문재활치료센터, 정밀진단이 가능한 고사양의 영상장비(CT, MRI)를 갖추어 본원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며 무엇보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본원과의 검사 및 진료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질병에 대한 수도권의 원정 진료를 최소화하여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해결함으로써 이번 상남한마음병원의 개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난 30년, 그 수많은 필름 사진 속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에, 물론 업무가 힘들기도 하지만, 속 깊은 그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씨가 있었기에 지금의 순간과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하충식 의장님께서 매 순간 기적이 함께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기적이야말로 하충식 의장님, 최경화 이사장님, 하창훈 의료원장님 이하 경영진 및 모든 임직원 가족의 행복, 봉사, 노력, 사랑,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개원 준비 간 병원의 이름표라는 간판부터 모든 구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인물 작업을 첫 직장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실행해 온 우리 홍보파트 권미정 매니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3월의 따스한 봄날에 피어나는 꽃처럼 상남한마음병원의 아름다운 미래를 염원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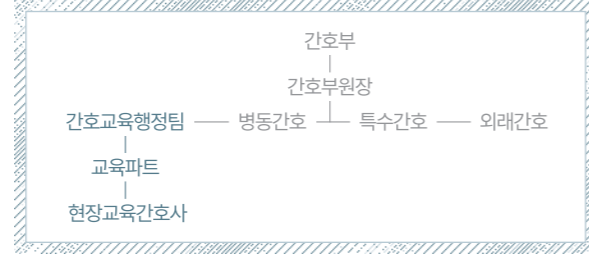
의료기관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역할이 공존한다.

크게는 진료부, 진료지원부, 간호부, 행정부 등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순환하며 고객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빠 움직인다. 그중에서는 현장을 기반으로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팀이 있다. 간호 현장과 행정을 잇는 징검다리, 우리 병원 '간호부'를 소개한다.

글·사진 김민정 홍보파트장

간호 현장과 행정을 잇는 징검다리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



(왼쪽부터) 송성민 현장교육간호사, 송연희 교육수간호사, 정명옥 외래간호팀장, 이경란 간호교육행정팀장, 윤연옥 간호부원장, 신희영 병동간호팀장, 이정화 특수간호팀장

간호부의 시작과 끝을 관장하는 이들

우리 병원 4층에 자리한 간호부. 이른 아침 찾아간 간호사무실은 아침 회의로 분주하다. 하루의 일과를 상의하고 나면 현장으로, 또 행정·교육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들. 간호부는 어떤 곳일까.

간호부는 현재 윤연옥 간호부원장, 이경란 간호교육행정팀장, 신희영 병동간호팀장(외과계 및 내과계 병동), 정명옥 외래간호팀장(진료과별, 인공신장실, 주사실 등), 이정화 특수간호팀장(중환자실, 집중치료실)을 중심으로 각 팀 산하에 수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교육행정팀 교육파트에 송연희 교육수간호사, 송성민 현장교육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다. 간호부를 소개해 달라는 말에, 윤연옥 간호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간호부는 간호 직원들이 일하기 좋고 에너지 넘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부서입니다. 간호부는 행정과 현장·교육을 관장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특히 간호부는 진료부, 진료지원부, 행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의료 현장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부. 그만큼 그 역할도 중요하다. 그중 간호 업무에 필요한 역량 개발과 직무, 보수교육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등 간호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병원의 미션, 비전에 따른 간호부의 미션, 비전, 목표를 정하고 간호 업무를 계획하며 인사관리 및 교육, 우수 간호 인력의 채용 및 유지 등 간호부 전반의 인사에 힘쓴다. 앞서 윤연옥 간호부원장의 말처럼 진료부서와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와의 업무를 조율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다.



간호교육행정팀의 역할

병원의 미션, 비전에 따른 간호부의 미션, 비전, 목표를 정하고 간호 업무를 계획한다. 인사관리 및 교육, 우수 간호 인력의 채용 및 유지 등 간호부 전반의 인사를 전담한다.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등장'

아침 회의가 끝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서 라운딩'이다.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점검한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필요한 직원들을 신중하게 채용하고 부서에서 역할을 잘하게끔 지원하여 부서가 원활히 운영되는 것이 간호부의 역할 중의 하나거든요.”

윤연옥 간호부원장은 직원들이 같은 목적으로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제 일을 해낼 때 보람을 느낀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신규간호사의 '교육'이다.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에 간호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다.

특히 올해부터 창원한마음병원에서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전담간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시범 사업은 프리셉터가 가진 가중된 역할이나 부담이 신규간호사들에게 투사되는 부분을 완화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창원한마음병원에는 기존 교육전담간호사 1명과 더불어 올해부터 현장교육간호사 8명이 배치됐다. 이들의 부서는 '현장'이다. 이

들은 부서마다 배치되어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것을 미리 파악하고 교육들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니터링해 가면서 신규간호사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수간호사인 송연희 수간호사는 교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충분히 습득하게 해서 현장에서 극복해 나갈 힘을 주려고 합니다”라고 전한다. 유능한 간호사를 육성해야 더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일하기 건강하고 활력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 네트워크가 견고히 굴러갈 수 있다고. 간호부의 하루는 이렇게 365일 교육과 현장을 단단히 메우고 있다.



간호교육파트의 자격과 임무

간호 임상 경력 3년 이상, 교육 전담 간호사 기본 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규간호사들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간호부 전체에 필요한 교육을 관장한다.



(왼쪽부터) 김현서, 최미경, 홍연주, 송연희, 송성민, 장수빈, 성소정, 송지혜 현장교육간호사

창원한마음병원이 경남도민의 평생건강파트너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그 중심에서 간호부는 현장과 행정, 그리고 사람을 잇는다. 오늘도 이들은 꼭 필요한 곳에서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 행복한 간호를 꿈꾼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곧 지역사회에 의료역량을 향상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 길일 것이다.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원 30주년 협력업체 축하 메시지

창원한마음병원과의 협력으로 병원 성장에 보탬이 되어 준 지역 업체들.

이들에게서 개원 30주년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결같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모든 부분에서 '상호 신뢰'를 지켰기에 오랜 세월 함께해올 수 있었다는 이들. 그 짧고도 긴 세월의 온기를 전한다.

구성 편집실

삼성의료기상사
1990년~현재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사하는 여정이 되기를

존경하는 창원한마음병원 가족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이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훌륭한 기관이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의료와 치료에 기여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어마어마한 성과에 감탄하며 감사의 뜻이 가득합니다.

지난 30년간의 협력은 저희에게 큰 자랑으로 다가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창원한마음병원은 뛰어난 의료진과 진취적인 관리팀의 노력으로 건강 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여러 이들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며, 삼성의료기상사가 창원한마음병원과 함께해 온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환자가 소중한 도움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병원이 이룬 성취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간미와 따뜻한 배려는 환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창원한마음병원의 뛰어난 업적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이 기간의 성취와 공로는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창원한마음병원의 높은 의료수준과 헌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창원한마음병원의 발전과 성공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30주년을 맞아 더 큰 성취를 이루고,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사하는 여정이 계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삼성의료기상사 김 형 석 대표 올림

제이케이메디칼
(구 삼성메디슨)

1990년~현재

아시아 의료 허브로 번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개원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 전에 하충식 의장님 홀로 작은 산부인과 의원 개원하여 명곡동, 상남동으로 현재의 한강 이남 최고의 사립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창원 최고의 종합병원을 뛰어넘어 대학병원, 아시아 의료 허브병원으로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원한마음병원의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평생건강파트너로 거듭나길 제이케이메디칼 임직원의 성심을 모아 기원합니다.

제이케이메디칼 정 재 우 대표 올림

두오메디칼
1990년~현재

창원한마음병원의 큰 뜻에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고향 함양에서의 인연으로부터 1994년도 창원고려병원 산부인과 의원으로 시작해 상남동 창원한마음병원을 거쳐 한강 이남에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현재의 창원한마음병원까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높은 의료수준 향상에 동행하게 되어 하충식 의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나온 걸음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미래에 의대 유치, 3,000병상 증설, 동남아 등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병원과 의과대학 구축 등 창원한마음병원의 큰 뜻에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두오메디칼 추 윤 옥 대표 올림

(주)효원메디콤

1996년~현재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울·경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금자탑을 쌓은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협력사로서 30년 이상을 멀리서 가까이에서 병원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동반 성장의 과실의 기쁨을 누린 (주)효원메디콤 대표 조길석입니다.

오늘의 창원한마음병원이 있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의료진들께서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으며, 얼마나 많은 강을 건넜겠습니까? 어려운 의료환경에 오로지 의료보국의 사명감으로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을 의장님을 생각함에 그 헌신적 열정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도 한 시도 변함과 흐트러짐 없이 오랜 세월 지역 의료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수많은 봉사과 기부활동을 함으로써 행복, 봉사, 사랑이란 경영철학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 귀감의 향기가 천 리를 가고도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로 위상을 펼치는 창원한마음병원의 무궁한 발전과 인류애 정신의 실천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병원사의 한 획을 그은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리며 의장님, 그리고 병원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효원메디콤 조 길 석 대표 올림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의 평생건강파트너로 성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창원시와 함께 도약하는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창원한마음병원이 있기까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및 의료진들께서 서비스를 받는 이용객의 작은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셨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창원에서 독보적인 자리에 오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덴소코리아(주)는 10여 년간 창원한마음병원에서 각종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직원들의 신속하고 친절한 대응에 감사드리고 있으며, 향후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30주년을 맞아 더욱 큰 성취를 이루시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며, 무궁한 발전과 인류애 실천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창원한마음병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해지시길 바랍니다.

덴소코리아(주) 온다 요시노리 대표 올림

덴소코리아(주)

건강검진 협력업체

직업건강협회

건강검진 협력기관

치료와 예방의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는 창원한마음병원이 되기를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30주년이라네요. 제가 산업보건에 몸담은 지 어느덧 31년 되었으니, 한마음보다 누나네요. 중소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꼭 지켜보며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료를 넘어 예방사업까지 확대하여 사업장의 특수검진, 일반검진과 종합검진 등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심에 의장님 이하 모든 직원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치료와 예방의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는 창원한마음병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직업건강협회 강 지 현 이사 올림

창원시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창원한마음병원, 경남의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창원한마음병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원과 함께 발전한 창원한마음병원은 창원시민의 희로애락을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창원특례시, 나아가 경남의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노력을 지지하며 창원한마음병원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모비스(주) 창원공장 직원 일동

현대모비스(주)

건강검진 협력업체

LG스마트파크2

건강검진 협력업체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창원고려병원 개원 후 30년간의 끝없는 노력으로 2021년 경남지역 최대 병상수, 최고 의료진, 최신시설 기반의 의료기관으로 거듭 발전하고 지역 사회에 크게 공헌한 창원한마음병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원한마음병원과의 인연으로 30년간의 의료기관 발자취 속에 LG전자 근로자의 건강을 조기에 점검하고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건강하게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LG스마트파크2 보건관리자로서 영리 목적을 뛰어넘어 지역 사회 구성원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LG스마트파크2 보건관리자 올림

직장에서 마음 맞는 '상사'를 만날 확률? 나를 잘 따르는 '부하'를 만날 확률? 여기 상사와 부하 간 케미 99.9%를 자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 방사선사와 간호사, 접점이 있는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직무에 있는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하면 척, 높은 케미 지수로 업무 효율까지 높이는 두 사람, 한마음 방사선종양학과와 한영동 팀장, 박수진 간호사를 소개한다.

구성 편집실

네가 소금이라면, 나는 사골국이야

방사선사 한영동 팀장 x 간호사 박수진 매니저

한마음 동료애 대표 주자이자 방사선종양학과와 케미 지수 99.9%,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 분 함께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팀 케미지수의 비결은 '편안함'이다. 팀장님, 평소 어떻게 팀을 이끌고 있나요?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눈여겨 보는 것도 팀워크 비결이네요. '서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에 비유하겠다'라는 질문에 팀장님은 박수진 간호사를 '설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한영동 안녕하세요, 방사선종양학과 팀장이자 방사선사 한영동입니다.
박수진 방사선종양학과 간호 데스크에서 신환자 안내와 간호 업무, 홍보를 담당하는 간호사 박수진입니다.

한영동 함께 일한 지는 2년 7개월 정도 되었네요. 한마음이 사립동으로 이전한 지 3개월 차에 방사선종양학과 간호사를 뽑았는데, 모두가 한목소리로 "인상 좋고 밝은 사람을 뽑자" 했거든요. 수진 간호사를 면접에서 보고 딱 맘에 들었어요.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었거든요.

박수진 저도 면접에서 팀장님을 처음 뵈었는데, 제가 취미에 '요리'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팀장님이 무슨 요리를 제일 잘하느냐 물어봐 주셔서 편하게 면접 봤던 기억이 나요. 첫인상처럼 지금도 편하게 대해주시고, 그게 우리 팀이 편하고 재밌는 제일 큰 비결 같아요.

한영동 우리팀은 정미주 교수님과 서재혁 교수님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참 잘 되어요. 그리고 저는 팀장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을 고집해서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자"라는 식의 지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탁 던져 놓고 "생각해 보자" 하면 다들 생각을 해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말발이 제일 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해요. 누구든지 타당한 해결책이 있으면 상황을 주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거죠.

박수진 예를 들어 "올해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건데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것 있잖아요. 항상 저희 의견도 듣고 반영해 주시는 거죠. 한 3년간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케미가 쌓이는 부분도 있는데, 팀장님이 제 말의 속도를 보고 상황이 급박한 걸 알아요.(하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더 빠르게 업무를 도와주시고 서로 티키타카가 되어요.

한영동 수진 간호사는 우리 팀의 '설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거나 지칠 때, 당이 필요할 때 정말 설탕 같은 존재예요. 피곤해도 같이 일하면 재밌고, 그래서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수진 간호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종양학과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예요.

박수진 팀장님, 저는 '사골국'이라고 했어요.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나는 사골국처럼 팀장님은 보면 볼수록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많은 진국인 분이예요.

한영동 옛날 사람들이 보통 꼭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당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잖아요. 그래서 '설탕'이라고 했는데, "수진 선생님이 사골국이라고 쓴 줄 알았으면, 소금이라고 할걸!"(하하)

“ 밝은 분위기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덩달아 힘이 나죠. 그런 부분에서 수진 간호사에게 정말 고맙고, 그게 우리 과의 큰 자랑입니다. ”

서로에게 고마운 부분, 미안했던 일, 여러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일화 있나요?

꼭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나요?

두 분의 케미가 왜 99.9%인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죠.

방사선사 한영동 팀장님



박수진 방사선종양학과 데스크에 간호사가 저 혼자라 외래 환자, 치료 환자를 다 보면서 동시에 업무까지 하기가 벅할 때가 있어요. 팀장님은 방사선사이시고, 저는 간호사여서 분명 업무 영역이 다른데도 업무를 모두 이해하고 저를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한영동 방사선종양학과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들이 많은 곳이지요. 굉장히 아픈 사람, 항암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문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오셨어요?^^" 하고 밝은 분위기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덩달아 힘이 나죠. 그런 부분에서 수진 간호사에게 정말 고맙고, 그게 우리 과의 큰 자랑입니다.

한영동 우리 팀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배고파요. 둘째, 집에 가고 싶어요. 셋째, 잠 와요. 이 세 가지만 제발 하지 말자고 해요.(하하) 배고프면 사무실에 먹을 것 항상 가득 채워져 있으니 먹으면 되고요. 잠오면 조금 쉬면 되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진짜 궁금해. "왜 집에 가고 싶지?"

박수진 요즘 사람들이 약간 입버릇처럼 하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예요. 그럼 팀장님은 "그래, 집에 가도 돼. 대신에 명찰 내놓고 가라^^" 하시죠. 영원히 꼭 쉬라는 뜻이죠.(ㅋㅋ)

한영동 정말 0.1%를 뺀 이유는 너무나 장난기가 많아 이야기를 하다가 산으로 가거나, 개그가 정말 안 웃긴 순간이 있을 때도 있어서예요.(하하) 그것 말고 100% 그 이상이지. 정말 수진 간호사를 포함해서 우리 팀 식구들 "이 멤버, 리멤버!"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진 정말 이 한마디면 우리 팀을 표현하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팀장님! 저의 마지막 팀장님이 되어주세요" 감사해요!

사골국에 소금처럼, 피로할 때 설탕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내 동료. 힘든 순간이 있어도 서로를 알아주는 동료들이 있기에, 이 팀워크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들. 이러한 시너지는 조직에도,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언제나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서로를 믿고 나날이 발전해 가는 한마음 방사선종양학과여, 영원하라!

간호사 박수진 매니저



왼쪽에는 용 한 마리, 오른쪽에는 백호 한 마리! 함께라면 든든한 우리.

61병동 박은주 수간호사
전보람 간호사
김수지 간호사

구성 편집실

전쟁에서 함께 버틴 베틀에 대한 애뜻함을 '전우애'라고들 한다.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곳 또한 흡사 전쟁터와 같다. 촌각을 다투는 고된 하루 속에도 든든한 동료가 있어 행복하다는 세 사람. 박은주 수간호사를 주축으로 전보람 간호사와 김수지 간호사가 케미 지수 120%로 환자를 지키는 한마음 61병동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61병동은 어떤 곳인가요?

전보람 안녕하세요, 61병동 전보람 간호사입니다. 61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고, 주로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를 전담합니다. 내과 환자가 입원이 필요할 때 오는 병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에 선정된 세 분,
서로를 소개하자면?

박은주 케미 100%로는 설명이 부족한, 120%인 사람들이고요. 저를 중심으로 전보람 선생님이 백호, 김수지 선생님이 청룡입니다. 실제로 김수지 선생님은 옹따예요(하하).

'동료애'로 선정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박은주 신희영 팀장님이 사수였고 저희가 신희영 팀장님의 후배들이었어요. 저의 사수인 신희영 팀장님과 저의 케미가 엄청 잘 맞거든요. 제가 책임간호사가 되고, 선생님들과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선정된 것 같아요. 신희영 팀장님의 리더십은 큰 파도 없는 강물처럼 잔잔하고 편안해요. 변함없는 관계예요.

전보람 팀장님이시지만 제 마음속에는 병원의 엄마 같은 그런 존재예요. 수선생님과도 4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소금빵' 같은 존재예요. 달고 짠 소금빵처럼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병동에서의 일상이 벽찰 때도
있으실 텐데요.

박은주 화가 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구성원들의 일하는 태도, 일상적인 태도 등 너무 많죠. 당연히 MZ세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요. 그때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게 수지 선생님이예요. 약간 엉뚱함도 있고, 수지 선생님의 후배들과 소통하는 법이 있어요. 또 한결같고요. 그 역할이 참 크죠.

김수지 수선생님과 같이 일한 지 7년 정도 됐거든요. 수선생님이 뭐가 필요한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하하) 수선생님이 스테이션에 들어왔을 때 뭘 지적하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하면서 중간자 역할을 잘 해내려고 합니다.

슬럼프라고 해야 하나요.
간호사에게 그런 순간은 언제인가요?

박은주 신규 간호사 때 돌아보면 입사하는 그날부터 슬럼프이자 어려움의 연속이예요. 자기 환자가 온전히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 먹어야 해요. 시간이 흐르면 다 약이 되어있더라고요.

전보람 제가 신규일 때 힘들면 바로 티 내는 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수선생님이 바로 잡아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더라도 모든 시스템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진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은주 수간호사

전보람 간호사

서로에게 언제 가장
고맙다고 느끼나요?

박은주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보람 선생님은 육아휴직을 거의 안 썼어요. 병동이 수지 선생님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들어올 수 있겠나” 했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보람 선생님이 들어오겠다고 해준 게 저에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전보람 아기가 아직 어리거든요. 아기가 아플 때 근무도 조절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런 게 정말 감사하죠.

김수지 “우리가 함께한 지 7년이니 13년 더 채워서 20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셋이 오래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박은주 그런데, 아마 수간호사 로테이션 시간이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더라도 모든 시스템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진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치 전우 같은 그런 사이네요.
세 사람에게 '한마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김수지 한마음은 스물세 살부터 함께한 제 첫 직장이에요.
전보람 되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함을 느끼는 곳이에요.
박은주 4년 차 간호사일 때 입사했는데 그때가 스물여섯이었네요. 우리한테는 한마음이 '청춘'이에요. 세 명 다 이곳에서 결혼했고, 여기서 아기를 낳았고,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만약에 61병동이 아니더라도, 세 명 다 어디서든 밝게 힘차게 빛날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좌청룡 우백호(김수지, 박은주, 전보람)



풍수지리에서 좌청룡은 지혜, 우백호는 힘을 상징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좌와 우의
대비가 맞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눈빛만 봐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세 사람!
수간호사를 중심으로 지혜와 힘을 지닌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하니 두려울 것 없다.
이들의 기세를 몰아 61병동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병원 진료 협력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진료협력센터

지역사회의 건강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 간 '신뢰'와 '협력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차적으로는 우리 병원을 믿고 찾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으로는 협력관계에 있는 병원들에 적합한 환자를 회송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적의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남지역 협력병의원 체결 수 1위, 우리 병원 진료협력 시스템을 소개한다.

자료·도움말 진료협력센터 권영판 파트장



진료협력센터의 역할

창원한마음병원 진료협력센터(HRC)에서는 지역사회 병·의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 의뢰된 환자에게 진료를 위한 예약, 2) 의뢰된 환자의 치료 계획과 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의뢰 의사에게 회신, 3) 급성기 치료 후 1단계 요양기관으로의 회송 역할을 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원활하고도 탄탄한 진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 의뢰

진료 의뢰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진료 접수 및 예약을 진행하며, 급한 경우 당일 진료도 가능하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진료 결과 회신

진료 정보공개에 동의한 환자에 대해 환자의 진료 진행 상황, 검사 결과,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의뢰한 병·의원 의사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외래 회송

외래 환자 중 본원의 진료가 종료된 환자는 외래 각 과에서 회송 요청시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협력병·의원 및 연고지 1,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있습니다.



입원 회송

중증질환 및 급성기 환자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환자와 보호자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적합하고 연속 진료가 가능한 협력병원 및 연고지 1,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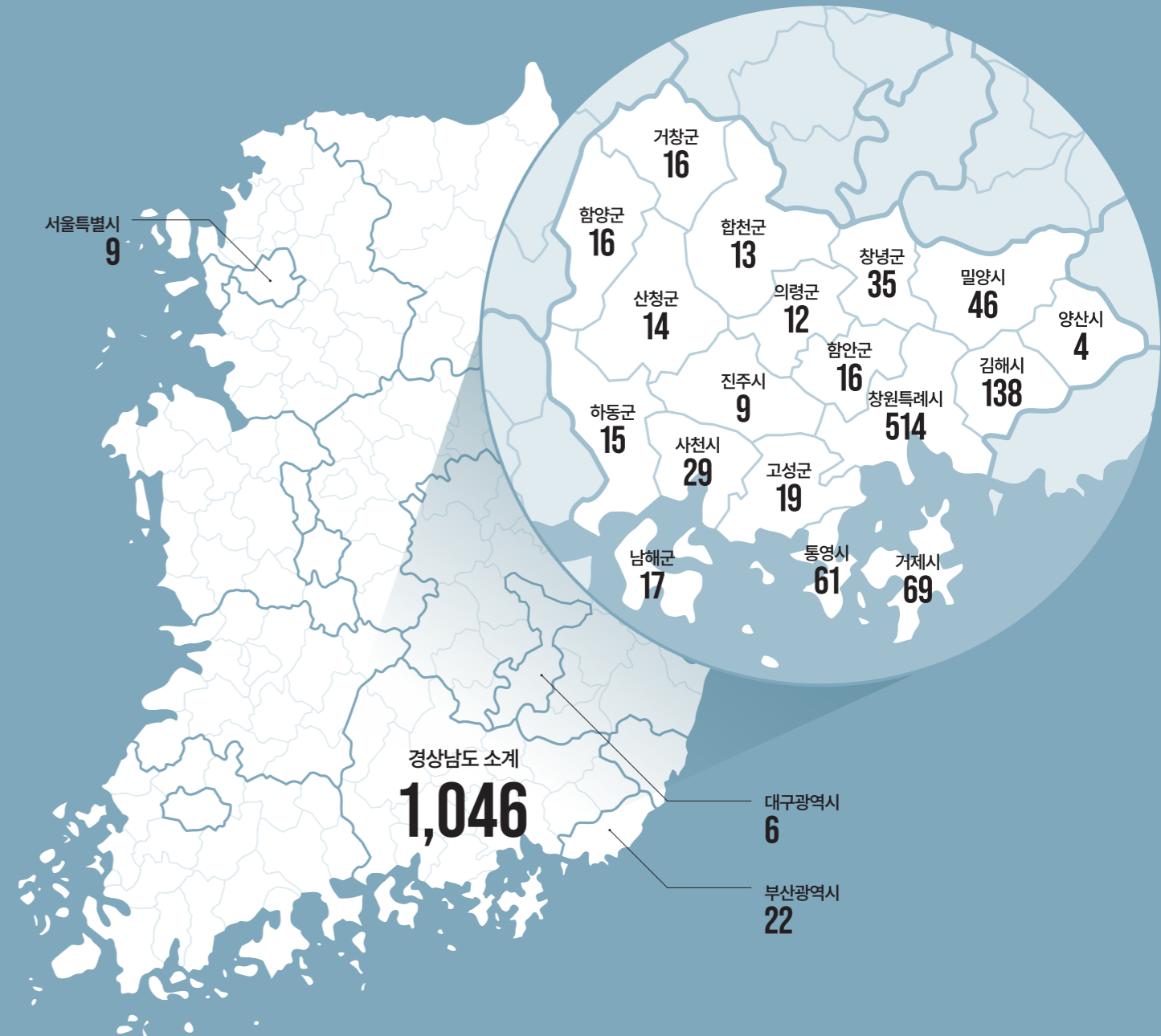
협약체결

지역 병·의원과의 상호 긴밀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자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협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을 협력병의원 현황



창원한마음병원 협력병의원 분포



창원한마음병원·상남한마음병원 의료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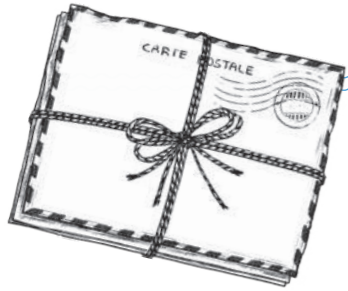
35개 진료과 의료진 세부진료과목 정보

창원한마음병원		
가정의학과	김혁재	예방검진, 건강증진, 환자교육, 만성질환관리, 생활습관병관리, 금연클리닉
	이석우	예방검진, 건강증진, 환자교육, 만성질환관리, 생활습관병관리
감염내과	박지영	감염질환, 감염관리, 예방접종, 면역저하자 감염질환
내분비내사내과	박성돈	당뇨, 갑상선질환(갑상선암),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류마티스내과	류희정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척추관절염, 루푸스 및 면역염증성질환, 베체트병 및 혈관염, 전신성근골격계질환
마취통증의학과	김윤석	산과마취, 소아마취, 정맥마취, 부위마취, 급·만성통증, 신경차단술, 중환자관리
	김대희	심폐마취
	김정훈	노인마취, 산과마취, 소아마취, 부위마취
	이민현	노인마취, 산과마취, 척추마취, 말초신경마취
	신수진	노인마취, 산과마취, 소아마취, 부위마취
방사선종양학과	정미주	두부경부암, 폐암, 식도암, 전이암, 유방암, 소화기암, 부인암, 비뇨기암
병리과	성현정	소화기병리, 부인과, 갑상선, 심폐병리
	주진우	폐병리, 유방병리
	안지현	혈액종양병리, 간담도췌장병리
	박관규	부인과 종양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비뇨의학과	이종복	전립선비대증홀렙수술,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여성비뇨기과학, 비뇨기종양
	이민호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신경인성방광, 요로감염, 비뇨기내시경수술
	성경탁	전립선비대증 및 전립선암, 비뇨기계종양, 배뇨장애
산부인과	신병섭	로봇복강경수술, 자궁암, 난소암, 내막암, 부인종양, 내시경수술, 폐경, 산과
	박지권	고위험임신, 유전진단, 유전상담, 태아정밀진단, 태아치료, 자궁경관무력증, 습관성유산, 보조생식술
	이수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난소종양, 부인암 및 부인암 복강경수술, 미세침습수술·단일공복강경수술, 단일공로봇복강경수술, 로봇복강경수술
	장석용	로봇복강경수술, 단일공복강경수술, 골반장기탈출증(로봇·복강경 이용), 질소음순성형술, 요실금
	조기식	고위험임신, 임신독증, 복강경수술, 여성회음성형, 질성형, 요실금
	정 혁	로봇복강경수술, 복강경(내시경)수술, 자궁근종/선근증, 비수술적 치료, 자궁암, 난소암, 자궁출혈/무월경
산부인과(난임)	권옥현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다낭성난소증후군, 반복(습관성)유산, 폐경기호르몬치료
	최은정	착상전유전자검사, 가임력보존클리닉, 다낭성난소증후군, 반복착상실패, 고위험임신, 산전 및 산후클리닉, 습관성유산, 인공수정, 시험관수술, 쌍태임신, 임신부 약물상담
	김무희	난임클리닉, 착상전유전자검사, 다낭성난소증후군, 난자생동, 가임력보존클리닉, 반복착상실패, 습관성유산, 비정장자궁출혈, 생리불순
성형외과	장석주	재건성형, 미용성형, 피부암, 안면골골절, 선천성기형, 유방재건
소아청소년과	김점수	신생아, 알레르기, 호흡기, 소화기, 소아중환자
	박은정	성조숙 및 성장(작은키)클리닉, 소화기, 호흡기, 알레르기
소화기내과	김명환	담낭/담도질환(담석, 용종, 담도암, 담도염), 췌장질환(췌장염, 췌장암)
	황준성	췌장·담도질환(담석,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질환(급/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위·대장질환(위암, 대장 용종, 대장암, 염증성장질환), 치료내시경(췌담도내시경, 내시경초음파, 담도경)
	김연수	급·만성간염, 급·만성췌장염, 대장암의 조기진단 및 용종, 간암의 진단 및 치료, 간경변증, 췌장암, 위암, 전암성병변(선종)
	이창민	지방간, 만성간염, 급성간염, 위장관질환(위·식도역류질환, 과민성장증후군), 간경변증, 간암
	정창욱	위장관질환, 췌담도질환, 간질환
	양원열	위장관질환, 과민성장증후군, 진단/치료내시경, 간질환
소화기내과	박나래	내시경, 건강증진, 환자교육
	이형한	소화기위장질환, 치료내시경, 내시경초음파, 염증성장질환
	김민웅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고혈압, 심장재활, 심부전, 고지혈증, 흉통, 관상동맥질환, 인공심박동기, 심장중재적시술
	최성일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중재적심장학
	김병준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부정맥, 인공심박동기, 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흉통, 실신, 하지통증
	최연우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고지혈증
신경과	박진국	뇌질환(뇌졸중, 뇌경색), 두통클리닉, 진전증(떨림증),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어지럼증, 대상포진, 안면통, 신경통
	이지연	뇌졸중, 운동장애(파킨슨병), 말초신경질환(저림증), 두통, 뇌전증, 어지럼증, 치매, 대상포진, 신경통
	하윤석	뇌졸중, 치매, 뇌전증, 어지럼증, 두통, 파킨슨병
신경외과	황재찬	외상성척추질환, 뇌출혈, 미세침습척추수술, 두부외상, 퇴행성척추질환, 통증클리닉
	박동선	뇌동맥류, 뇌출혈,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혈관기형 등 뇌혈관질환의 수술 및 인터벤션시술
	승원배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등의 뇌혈관질환, 뇌출혈,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종양, 두부외상
	최재혁	뇌동맥류, 뇌출혈,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종양, 수두증 등 뇌혈관질환의 수술 및 인터벤션시술
신장내과	김성민	혈액투석, 급성콩팥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신염, 요로감염, 부종
	김이레	혈액투석, 급성콩팥병, 만성콩팥병, 사구체신염, 단백뇨, 혈뇨, 부종, 요로감염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김슬아	사랑니발치, 난발치, 치조골수술, 임플란트, 일반보철
안과	이진철	녹내장, 백내장(다초점, 노인백내장수술), 콘택트렌즈, 외안부(안구건조증)

영상의학과	조준희	인터벤션영상의학, 복부영상의학
	남기동	영상판독(MRI, CT, 초음파, X-ray)
	신 맥	근골격영상의학
	이현호	흉부, 복부, 근골격계, 뇌신경영상의학, 인터벤션
	하동호	근골격영상의학
	구영훈	영상의학
	오수정	영상의학
외과	장종원	내분비암(유방, 갑상선, 부신), 소화기암(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담낭, 담도, 췌장), 장기이식 및 고난도 외과수술
	차성재	위/대장암, 종양외과, 소화기외과, 항문질환, 탈장수술, 소아외과, 복강경/로봇수술
	추원공	하지통증 및 부종, 대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기능부전, 당뇨발 및 투석접근로, PICC, 만성창상, 복부응급수술
	손석우	위암, 대장항문, 복강경, 소아외과, 간담체외과
	주중우	간담체외과(간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간전이암), 간이식(진행성 간암에서의 간이식)
	조휘동	간담체외과, 간이식/간기증자수술, 로봇수술, 단일공복강경담낭수술
응급의학과	조성필	중환자의학, 중증외상, 독성학, 일반환자진료
	고민정	외상, 소아응급질환, 기타응급질환
	김혜란	외상응급의학, 독성학, 중환자의학, 재난의학
	박상협	응급소생술, 고압산소치료 및 외상환자치료
	안병기	소생의학, 외상, 소아응급, 기타응급질환
	여정훈	응급임상술기, 응급영상, 독성학
	유대한	중증외상, 독성학
	이시원	외상응급의학, 독성학, 응급기도관리
	강문주	소생의학, 중환자의학
	허지원	중증외상, 중환자의학
	김경탁	중독의학, 심폐소생의학
	이비인후과	이동후
	최시홍	편도질환, 인후두염, 부비동염, 비중격만곡증, 이과질환, 일반이비인후과질환
재활의학과	심재선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의 재활(뇌경색, 뇌출혈, 척추손상, 뇌성마비 등), 근골격계 통증환자 치료, 근골격계 통증환자의 초음파, 통증환자의 근전도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장지나	조현병, 조울병, 우울증, 불안장애
정형외과	문현석	최소침습내시경수술, 척추디스크 및 협착증, 수족부미세수술, 최소절개인공관절치환술, 상지 및 하지 미세관절내시경수술, 변형교정술
	임인택	어깨 및 무릎관절, 척추질환, 인공관절치환술, 오십견, 골다공증, 외상골절수술, 손목관절질환
	김대용	척추외과, 관절내시경수술(어깨, 무릎 및 사지관절), 골절수술, 인공관절수술
	이상혁	로봇인공관절수술, 복합골절 및 외상, 내시경(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고관절), 척추관절 최신 양방향 내시경수술
중환자의학과	김기환	대량재해, 외상응급의학, 독성학, 응급기도관리
	김태현	중환자, 외상
	최진욱	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 중환자의학
	황일웅	중환자의학, 심폐소생술, 독성학
직업환경의학과	함정오	특수건강검진, 국민보건교육, 생활습관개선, 건강증진
	김재윤	특수건강검진, 사업장 보건관리
진단검사의학과	송두열	임상화학, 진단면역, 임상미생물, 분자진단
	박수진	진단혈액, 임상미생물, 분자진단
	안규대	진단혈액, 임상화학, 진단면역, 수혈은행, 임상미생물학, 분자유전
치과	강현구	임플란트보철, 사랑니, 심미보철, 틀니보철, 신경치료, 치주치료
피부과	신호철	일반피부질환, 손·발질환, 아토피피부염, 탈모
핵의학과	박윤수	종양핵의학, 분자영상, 방사성핵종치료
혈액종양내과	박경태	혈액암, 양성혈액질환, 고형암
	송무근	림프종, 다발성골수증, 위암, 대장암, 기타 고형성종양, 폐암, 혈액
	김성근	고형암(위, 대장, 간담체, 폐, 유방, 두경부, 비뇨기, 부인과암 등), 혈액암(림프종, 다발성골수증), 그 외 빈혈, 혈소판 및 백혈구질환
	오소연	고형암 항암치료, 암성통증
호흡기내과	김사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천식, 폐결핵, 폐암, 알레르기질환
	박성수	급성폐손상질환, 폐암, 결핵, 천식,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호흡기중환자의 관리, 알레르기질환
심장혈관 흉부외과	최주원	폐·식도 외과, 흉부종양수술, 혈관수술, 정맥류수술
	이동협	심장막안질환, 관상동맥우회술, 심방세동제거술

상남한마음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지영	마취 업무 전반
소아청소년과	이병용	호흡기, 천식, 아토피, 비염, 알레르기 면역 치료, 신생아 발달, 소화기, 감염
	송상욱	호흡기, 소화기, 알레르기·천식, 신경·감염성질환, 신생아클리닉, 예방접종
	최재욱	호흡기, 알레르기·비염, 소화기질환, 열성경련, 신생아질환, 소아 아토피 피부염
소화기내과	임병렬	소화기 위장질환, 간질환, 치료 내시경
신경외과	박인성	뇌혈관질환, 미세감압술, 노인신경외과, 신경중환자의학, 두부외상학
영상의학과	원희수	영상의학
외과	고영환	대장암 및 직장암, 하지정맥류질환, 말초신경병증 및 정맥통증, 대장·항문병질환
정형외과	하성진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어깨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외상(골절), 수부외상, 손목관절
	양정호	견관절, 슬관절질환



pr@hanheart.co.kr

정답을 사진으로 찍어
해당 메일로 보내주세요!

한마음 퍼즐을 맞추라!

한마음 30주년 기념 병원보 재밌게 읽으셨나요?
병원보에서 단어를 찾아 우측의 퍼즐을 맞힌 후
한마음 홍보파트(pr@hanheart.co.kr)에 보내주세요.
(~2024년 6월 30일까지, 한마음 고객행복센터 접수 가능)
퍼즐 전체를 맞힌 분 중 10명을 선정해 커피 한 잔을 보내드립니다.

1		5		7		10	12
		3	6				
1	2				11	10	
	2			8		12	13
3 4				9			
		6	9			11	
5	4				8		14
			7				

세로

- 1 명사 하나로 합친 마음. 변함없는 마음. 병원의 이름이자 제호.
- 2 명사 미술품을 전시하는 시설.
- 3 명사 피곤할 때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 4 명사 먼 곳으로 떠남. 의료에서 '이것' 진료를 떠난다는 표현으로 쓰임.
- 5 명사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커짐. 하층식 의장은 인사말 (16p)에서 괄목할 만한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함.
- 6 명사 학문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것' 대회를 통해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을 논함.
- 7 명사 말하는 바로 이때. 인생에서 소중한 '금' 세 가지는 황금, 소금 그리고 '이것'.
- 8 명사 혈액 속에 포함된 당. 의료 상식(30p)에서 디저트 등을 많이 섭취하면 '이것'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함.
- 9 명사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철. 한마음은 사회공헌(13p)으로 '이것'에 따른 다양한 아동 초청행사를 진행함.
- 10 명사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함. 또는 급한 정황에 대처함. 열정 24시(26p)에서는 '이것' 의료센터의 하루를 다룸.
- 11 명사 말로 단단히 부탁함. 김명환 병원장은 취임사(19p)에서 주인 정신, 소통의 정신, 소명 의식을 '이것'함.
- 12 명사 같은 직장이거나 같은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인물 인터뷰(48~51p)에서 '이것'의 이야기를 다룸.
- 13 명사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힘.
- 14 명사 순환기 계통의 중심적인 근육 기관. 열정 24시(29p)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환자의 '이것'이 될 때라고 함.

가로

- 1 명사 시가를 읊조리며 그 맛을 감상함.
- 2 명사 재주를 뜻함(術技). 키워드 한마음(12p)에서 외과는 철저한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함.
- 3 명사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하는 돈. 창원한마음병원은 지역대학 및 초·중·고교에 매년 '이것'을 지급함.
- 4 명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 창원한마음병원은 의료 '이것'임.
- 5 명사 '원(院)' 자로 끝나는 기관을 세워 일을 시작함. 창원한마음병원은 올해 '이것' 30주년을 맞이함.
- 6 명사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애쓰. 창원한마음병원의 핵심 가치는 행복, 노력, 사랑, 혁신 그리고 '이것'임.
- 7 명사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
- 8 명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창원한마음병원은 대한민국의 '이것'이 되기를 원함.
- 9 명사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오줌, 소변에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
- 10 명사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것'을 선사함.
- 11 명사 어떤 사태에 맞추어 행동을 취함. 창원한마음병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이것'이 뛰어났다는 평을 받음.
- 12 명사 갑작스럽게 늘어남.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의료 수요는 '이것'할 수밖에 없음.

Happiness, Service, Effort, Love, Innovation

Always be with U, 창원한마음병원

YouTube

♥ 행복, 봉사, 노력, 사랑, 혁신

믿을 수 있는, 재미있는
병원 소식과 건강정보를 한눈에!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

창원한마음병원
건강 ZIP.

youtube.com/@hanhearthospital

“유튜브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의학 정보와 의료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바로가기



▶ Hi 한마음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